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업황 부진을 견디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둔화 시 대출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대폭 인하>

연준 ‘빅컷’에도 美증시 내리막 글로벌 중앙銀 ‘금리인하’ 눈치

정례회의 앞서 기습 금리인하
코로나 대응 시장 안정 나섰지만
뉴욕증시 3대 지수 급락 역효과
주요국 중앙銀 공조 의구심 증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파격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 조치가 되레 시장에 역효과를 내면서 과연 기준금리인하가 해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4일 해외 언론들은 연준이 ‘빅 컷(Big Cut·금리 대폭 인하)’으로 선수를 치면서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주요 중앙은행도 공조 차원의 금융 완화와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전날 연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7~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앞서 기습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이 FOMC 정례회의에 앞서 금리를 내린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금리인하 폭도 통상의 0.25%포인트 ‘베이스스텝’이 아닌 0.5%포인트였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라 선수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시장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기에 연준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3일(현지시간) 거래를 마감할 무렵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닦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에도 불안한 장세를 보인 가운데 2.94% 급락했다.

뉴욕/AFP 연합뉴스

놓느냐는 의구심을 부채질한 것이다.

이에 BOJ와 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에는 10개 주요국 중앙은행이 서로 협조해 동시에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긴급 성명을 발표해 금리인하를 예고했고, BOJ와 영란은행(BOE), ECB 등은 이번 주에 성명을 발표했다.

또 연준은 정례 FOMC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중앙은행들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공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연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가운데 달러화의 독보적인 강세를 경계, 가장 먼저 통화정책 완화를 결정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공조’가 아닌,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ECB와 BOJ는 연준

의 선제 조치에 유로화와 엔화 강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이날 0.4% 올랐으며 엔화 가치는 한때 1.3% 뚝 106.93엔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B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ECB가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저렴한 이자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인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이 기업 친화적으로 더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OJ는 이번 주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별 조치에 나섰다.

다만 ECB나 BOJ 모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조’가 ‘경쟁’으로 바뀌면 시장에 새로운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은, 연준 행보 동참하나...

무게 실린 ‘4월 금리인하’ 이달 전격 결정 가능성도

일각에선 “인하 압박 거세도
외환시장 고려 신중할 것”

미국 연준(Fed)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데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 역시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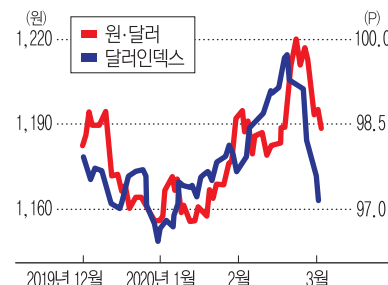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한은이 늦어도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GDP)이 최소 0.3%포인트 내지 최대 1.0%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재정승수를 계산해보면 0.3도 나오지 않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기도 힘들다”며 한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일각에서는 4월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먼 만큼 연준처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가 어렵다. 추경도 편성한 만큼 한은도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긴 어려워 임시금통위를 열 것으로 본다. 금리

원·달러 vs 달러인덱스



인하도 한 번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인하 압박은 거세겠지만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4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다. 경우에 따라 한은 금리인하 압력도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도 “금리인하 시 외환시장 등 시장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긴급 간부회의를 한 후 배포한 말씀자료를 통해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5조 원 증액해 선별적 수단을 쓴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환자 곁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곧 봄이 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TV 등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액 30만원으로 확대

4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은 방역역량 확충과 소비 진작에 집중됐다. 총 11조7000억 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이 민생·고용안정(3조 원)과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에 쓰인다.

먼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발표)'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취약계층에 2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 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민생·고용안정에 3兆
온누리상품권 발행 5000억 늘려
1인당 구매한도 70만→100만원

방역체계 고도화 2.3兆
음압병실 120개·구급차 146대
감염질환 검사장비 등 대폭 확충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도 발행 규모가 기존 2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 확대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으로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당장은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되면 타격이 너무 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소비 진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차원에서선 전국에 161개뿐인 음압 병실이 120개 확대되고,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 구매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선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리기 등 검사·분석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또 권역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과 중부권에 전문병원 2개소가 신설된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별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는 이미 지원된 예비비에 더해 추경에서 44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선별진료소 필요장비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100개소에는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 구매비가 지원된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선 총 3500억 원의 보상금과 4000억 원의 경영 안정화 용자가 지원된다. 또 입원·격리 치료자에 대해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해당 예산은 이미 예비비로 편성됐으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추경에 추가 편성됐다. 의료기관과 각급 학교, 저소득층에 대해선 마스크 1억3000만 장 이상이 무상 지원된다. 특히 대구·경북에 898만 장이 우선 공급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극복 추경 주요 내용 (단위: 억 원)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3조 원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800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조7000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용자 등	5000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4조 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1조7000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6100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1400

민생·고용안정 3.0조 원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2조4000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6300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0.8조 원	
피해지역 특별 지원	1300
지역상권 활성화·소득 증대	2400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2900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0.6조 원(자금지원기준 1.5조 원)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100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5100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1000

※ 출처: 기획재정부

긴급경영자금 용자 2조 원으로 확대 근로자 1인당 月 7만원 추가 임금보조

중소·소상공인 2.4兆 편성
대출 보증·보험규모도 대폭 늘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6000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또 소상공인이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의 임금보조비를 4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추경예산 1조2000억 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용자를 2조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용자 규모가 각각 6000억 원, 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설비투자자금 1000억 원도 지원한다.

최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예산 1674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신용보증 3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8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산·기보에 16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 원의 추경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 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 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직원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월 7만 원을 더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곳이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 원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더 늘려 19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 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 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20개 시장에 6억 원씩 지원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OS

필승코리아 펀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 ~ 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재정적자 외환위기 수준… 국가채무 40% 넘어서

관리재정수지 GDP 比 -4.1%… 국가채무 815.5조 역대 최대 추경 부족금액 10.3조 국채발행 충당…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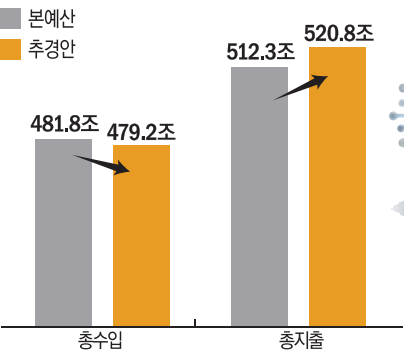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세출 기준으로 8조5000억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추경 당시 4조 원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도 역대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에서 -4.1%로 0.6%포인트(P) 악화돼 1998년 -4.7%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셈이다. 정부는 1998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6%를 기록한 것을 빼면 1~2%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2019년에도 37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9%에 그쳤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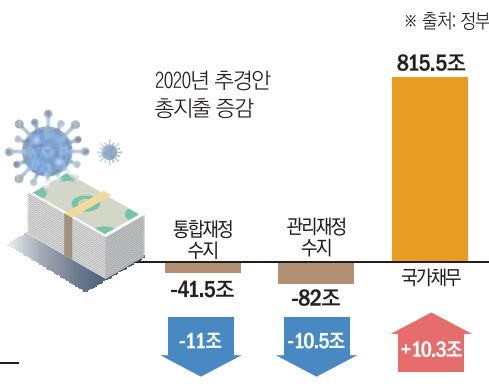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 원) 기준으로 GDP 대비 37.1%, 추경(731조5000억 원) 기준으로 37.2%

코로나19 추경안 규모 (단위: 원)



였고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다. 그동안 재정당국은 확장재정의 마지노선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40%, 관리재정수지 -3.0%를 제시했지만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10조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앞서 올해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등이 크게 줄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우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곧장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로 이어진다. 국가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앞서 지난달 12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우리와 비슷한 국가신용등급 국가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39.5%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한층 강화하고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다가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은 2~3분기 중 집중될 전망이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조기 집행을 반영해 추가 국채발행 물량에 대한 발행을 2~3분기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최대한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2~4분기 중 평탄화(분산발행)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여야 ‘코로나 추경’ 초고속 처리할 듯

‘선심성 예산’ 삭감 진통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는 ‘초고속’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추경의 세부 내역을 두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여당 대표의 언급 이후 3주가 걸린 것과 비교해 빠른 타이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

의에서 “정부는 ‘조스피드’로 진행해왔다.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우선 정부 시정연설을 거친 뒤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최소화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 이전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보다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추경은 국회 처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

기 위해 추경이 절박한 시점이다. 야당도 여느 때처럼 추경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 하되 세부 내역에 대한 심사만큼은 간간하게 진행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히 여당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포함했는지 꼼꼼하게 살펴겠다는 입장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초기 전파자’ 미궁… “우한·中 다녀온 신도 분석”

확진자 65% 신천지 관련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량 확산시킨 대구 신천지 교회의 감염원 찾기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방역 당국은 우한시와 중국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는 전날 오후 이후 435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5621명, 사망은 5명이 늘어난 33명, 격리해제는 7명이 더해져 41명으로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경북까지 더하면 국내 확진자의 90%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했다.

대구 확진자는 대부분 신천지와 관련이 돼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구는 신천지교회라는 특수한 노출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의 64.5%가 신천지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도 신천지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아직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30%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신천지 교인 관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교회, 의료기관 등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2~3차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있어서는 대구 신천지교회라는 감염 로가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신천지교회의 감염

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전파자’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방대본은 법무부로부터 신천지 신도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받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2명을 파악했다. 한 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확진자이긴 하지만 발병 시기가 지난달 말로 초기 확산 시점과 거리가 있다.

또 방대본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가면서 초기 전파자로 추정할 수 있는 확진자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은 특히 우한시에서 대규모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천지 신도들의 입국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확진자 증가세 한풀 꺾였으나 지역사회 전파는 ‘현재 진행형’

의료기관 등 감염 경로 다변화
천안 운동시설 80명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확진환자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 등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계속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5621명으로, 전날 오후보다 435명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환자 증가세는 현재진행형이다. 환자별 감염경로가 집계된 이날 0시 통계를 기준으로 총확진환자 5328명 중 대구·경북 환자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경기(101명)에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서울(99명)과 부산(93명)도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 초기 대구 신천지교회(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으로 특정됐던 감염 경로는 전국 의료기관과 종교시설로 다변화하고 있다.

서울에선 은평성모병원에서 14명, 성동구 아파트에서 14명,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6명이 발생했으며, 부산에선 온천교회에서 33명의 환자가 나왔다. 경기는 수원시 생명샘교회에서 6명의 환자가 확인됐는데, 교회 내 감염원으로 특정되는 환자가 회사 교육에서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도도 코로나19 환자였다. 경북은 칠곡군 밀알 사랑의 집(24명)과 경산시 서린요양원(13명), 한국전력지사(4명) 등에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집단발생 주요 사례 (4일 0시 기준)

서울	은평성모병원	14명
서울	성동구 아파트	14명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6명
부산	온천교회	33명
경기(수원)	생명샘교회	6명
경북(칠곡)	밀알 사랑의 집	24명
경북(경산)	서린요양원	13명
충남(천안)	운동시설(쑤바덴스)	80명

발생했다. 특히 충남 천안시에선 운동시설(쑤바덴스)을 중심으로 무려 80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나마 진단검사 확대로 신천지 신도를 비롯한 ‘숨은 환자’들이 조기 발견되면서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게 위안거리다. 전날에는 하루 동안 무려 851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동안(신규) 환자가 많았던 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집단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계속 나오면서 500건, 600건씩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자가격리를 통해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검사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2차적인 전파 위험은 먼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신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많이 나와 전반적인 확진환자 수는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음성 건수는 10만2965명으로 하루 새 1만7481명 늘었다.

한편, 현재까지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의 환자는 총 52명으로 파악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마스크 대란’ 이유 있었네… 1월에 작년 총액만큼 수출

기타 방직용 섬유 수출액 7261만 달러… 전년비 8.8배 ↑
85% 中에 수출… “초기 비축 못한 건 정부의 판단ミス”

#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인도에는 오전 6시 30분께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판매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630장으로 한 사람당 세 장씩 총 210명이 구매할 수 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스크를 사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지만 물량 소진으로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시민은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마스크 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은 몇 시간씩 줄을 기다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나마 구하기라도 하면 좋으려면 공급이 모자라 헛걸음을 하기 일쑤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것이 부족하면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도 마스크 수출을 거의 줄이고 생산업체의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1월 수출 물량이 지난해 연간 총

액에 육박할 정도로 해외로 나간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26일 오전 0시를 기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한 바 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이 가능하게 했으나 이 역시 같은 달 28일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고 판단,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오기 이전 이미 해외로 나간 마스크 물량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1월 한 달간 마스크 등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총수출액에 육박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보면 1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출액은 7261만 1000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수출액 829만6000달러의 8.8배이자 2019년 연간 수출액 8091만 달러의 89.7%에 이른다.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마스크를 비롯해 섬유로 된 기타 제품이 들어간다.

마스크만 따로 분류한 통계는 아니지만 해당 품목의 매년 수출액이 엇비슷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수출이 1월 유독 늘어난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마스크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에 달했다. 대(對)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82만 달러에서 올해 1월 6135만 달러로 75.2배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대만처럼 초기에 수출을 막아 비축을 하고 이 물량을 소진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며 “정부의 상황 판단 미스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청년 근로자 5명 중 2명 ‘알바’

비정규직 1년 새 5.8%P 급등

청년(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1년 새 5.8%포인트(P)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청년층에서 유독 많이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4%로 전년보다 5.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3.0%에서 36.4%로 3.4%P 올랐다. 청년층은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비율도 크지만,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파르다.

청년층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지난해 43.5%로 0.8%P 오르는 데 그쳤다. 인구가 8만8000명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가 4만1000명 늘어난 결과라는 점에선 긍

정적이지만, 상승률은 비정규직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취업자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됐다는 의미다.

니트(NEET)족 비율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입국들의 평균 니트족 비율은 2007년 13.8%에서 2017년 13.4%로 내렸으나, 한국은 18.2%에서 18.4%로 올랐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5.0%P 높다.

청년 우울감 경험률도 전체 연령대를 크게 웃돈다. 2012년까지는 전체 연령대의 경험률보다 낮았으나, 2013년부터는 완전히 역전했다. 2017년 기준으로 13.5%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1.2%보다 2.3%P 높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구에서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기존 野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유영하 변호사에 옥중 서한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우 힘들고 간극도 있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저도 하나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가 직접 쓴 서한을 공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수 진영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은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

소했다”며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특히 대구 경북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나날 수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잘 견뎌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오늘 접견에서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단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美 연준 의장〉

‘패닉 버튼’ 누른 파월…“시장 신뢰 잃었다”

기준금리 0.5%P 긴급 인하

美 실업률·인플레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 충격 최소화 위해 단행
평정심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시장·트럼프 압력에 굴복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다방면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연준의 시도는 인정하지만, 그동안 추구해온 금융정책 판단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연준이 금융정책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고용과 물가상승률로, 이날 결정은 이들 기준과는 전혀 무관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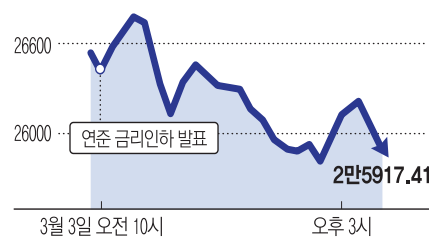
다. 미국의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실업률도 여전히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낮은 상태이지만, 연준이 대폭적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

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조정했던 ‘베이비스텝’에서 크게 벗어나 그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것에 주목, 코로나19 때문에 평정심을 잃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YT는 연준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미국 다우지수 추이



꼬집었다. 지난해 주뉴욕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블랙 위크(Black Week)’를 연출하자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연준이 덜컥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실 현 국면에서 금리 인하는 미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우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워낙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라서 향후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할 실탄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점점 더 심각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연준 및 다른 중앙은행들의 대

응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NYT는 “현재 시장을 동요시키는 건 바이어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각국 보건당국과 연구소, 제약사 등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연준이 코로나19에서 미국 경제를 절대 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준이 감염 확대에 따른 공급망 혼란으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공장을 재가동시키거나 불안에 빠진 여행자들을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 등 중앙은행이 경기순환 대응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과거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자산가격 급락 등에 의해 발생했다. 현재는 생산성 개선 속도 둔화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글로벌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상황이라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무기력해졌다고 WSJ는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블룸버그 등판하자마자 하차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슈퍼 화요일’인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유세 집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다 있다. 블룸버그는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진 이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이유로 경선 중도 하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화요일 경선 초기 집계 결과,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팜비치/로이터연합뉴스

이번엔 中 부동산 중개사 대규모 투자 손정의 ‘위워크 실패’ 벌써 잊었나

코로나로 베팅 불확실성 커져

미국 사무실 공유서비스 업체 위워크 투자로 큰 손실을 낸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이 이번엔 중국에서 유사한 기업에 투자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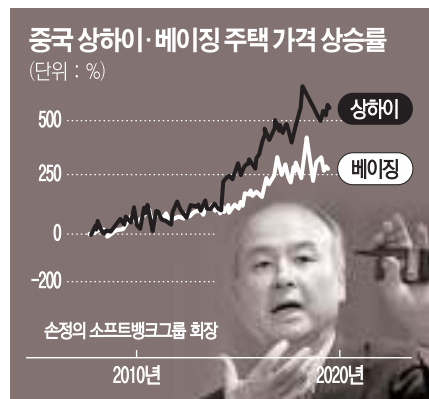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는 산하 비전펀드를 통해 중국 임대주택 중개회사 ‘쑤루(ZIROOM)’와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베이커자오팅(BEIKE)’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소프트뱅크는 쑤루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창업자한테서 5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별도로 매입했다. 이에 쑤루의 기업가치는 66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로 뛰었다. 베이커자오팅에는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투자회사 할하우스캐피탈매니지먼트,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 텐센트를 딥스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베이커자오팅 평가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WSJ는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국면에서 소프트뱅크가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급등해 진입이 어려웠다. 중간계층의 소득 증가로 주택 구입 붐이 일면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10% 증가해 13조9400억 위안(약 2300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직후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베



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소프트뱅크의 대표적 투자 실패로 꼽히는 위워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중국 쑤루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워크와 닮아서다. 위워크가 사무실 공유서비스 기업이라면, 쑤루는 주택 임대를 중개하는 업체다. 또 위워크가 스스로를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기술기업으로 명명했듯이 쑤루도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를 연결한다는 점을 들어 기술기업이라 표방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팬데믹 공포’ 커지는데… WHO ‘안일한 태도’ 또 도마에

‘세계적 대유행’ 정의 못내리고 도쿄올림픽도 낙관적 전망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일한 태도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9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WHO는 정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타케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팬데믹 기준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협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따라 WHO는 더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6단계 팬데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만들어졌지만, 코로나19를 위한 팬데믹 정의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WHO는 7월 열릴 예정인 도쿄 하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낙관론만 늘어놓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에 관한 결정을 내리긴 이르다”고 밝힌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사진) WHO 사무총장은 “일본 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나는 일본을 신뢰하며 진척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日 도쿄올림픽 연기론 ‘솔솔’

하시모토 올림픽상 “연내 연기 가능”…5월엔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마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사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담당상(이하 올림픽상)은 “올해 중이라면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하시모토 올림픽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것인지 또는 중지하거나 연기할 것인지”라고 질문하자 “개최 도시 계약을 살펴보면 국제올



림픽위원회(IOC)가 취소할 권리를 지나는 것은 ‘본 대회가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해석에 따라서는 올해 안이라면 대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를 결정해야 할 최종 기한에 대해서는 “IOC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딕 파운드 위원장은 5월 말이 최종 기한이라고 발언했다”며 “이 시점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당신들은 우리의 의료 영웅입니다!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듭니다”

5년 전,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환자들과 함께 병원에 격리된 채 끝까지 곁을 지켰던
한 간호사의 말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더 악착같이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제 환자에게는 메르스 못 오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각오도 이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함께하기 제일 어려운 그 절박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돌보는
의료진, 구급대원, 또 수많은 의료 현장 스태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라는 단어에서 "사(師)"가 스승을 의미하는 이유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루빨리 당신의 얼굴에도 대한민국의 얼굴에도
웃음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소처장에 김은경… ‘금감원 유리천장’ 깬 첫 女부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서 임명
분조위·제재심의 위원 등 역임
법률 지식·업무 조율 전문성 갖춰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사진) 한국의외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처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에 오른 그는 한국의외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맨하임(Manhei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험법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을 역임해 금융감독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2018년에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같은 해 3월부터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금감원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임기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부원장이 이끄는 금소처는 윤석현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이다. 윤원장은 기존 6개 부서와 26개 팀을 13개 부서와 40개 팀으로 조정하고 인력도 기존

의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렸다. 또 금융상품의 약관심사와 모집·판매,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기능과 함께 민원·분쟁·검사까지 맡는다.

김 교수가 금소처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금감원 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감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금소처장 후보로 김 교수 외에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교수는 금감원이, 김용재 교수는 금융위가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감원이 지지해온 김현수 교수는 윤 금감

원장과 가까운 진보 성향 학자로 알려진 만큼 자칫 금감원이 강성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 등 다른 부원장급 임원은 유임됐다. 이들 3명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금소처장 임명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금감원 임원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이 제청해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금융위가 임명하는 구조지만, 부원장보는 금감원장 전결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범근 기자 nova@



상담원으로 변신한 지성규 행장 지성규(왼쪽) 하나은행장이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코로나 확산에 ‘신규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 영입 제동

채용 시험·교육 잠정 중단
업체, 수익성 개선 ‘먹구름’

코로나19로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 시험·교육 모두 중단됐다. 보험사와 카드사 영업 모두 대면 영업이 필수지만, 신규 설계사 유입 지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대면 영업이 중단된 상황마저 겹쳐 수익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드모집인 신규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신규 교육 개시일은 미정이다. 카드모집인 교육과 시험은 보험설계사와 달리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다만, 모집인 난립을 막기 위해 여신협회에서 각 사와 협의해 교육과 시험을 진행한다. 평균 시험을

시 인원은 한 주당 700명씩 한 달 평균 3000명 규모다.

현재 카드업체는 신규카드모집인 공급 논의를 위해 시험 면제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험과 교육을 면제하면 기존 모집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시험 없이 모집인을 공급하면 기존 모집인분들과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이달 시행 예정인 설계사 자격시험을 모두 취소했다. 이달 첫째 주 시험만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보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은 한 해 21만 명,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은 17만 명씩 응시한다. 월평균 3만 명가량의 응시생이

시험을 못 보는 셈이다.

이에 보험사는 신규 설계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 설계사가 유입돼야 보험사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데 채용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의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 카드모집인은 보통 두 달 뒤에 정산을 받는다. 이달 정산 금액은 지난해 12월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다.

이에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험사 대면 영업도 사실상 중단 상태여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체는 수당 체계 변경과 보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리·하나銀 ‘DLF 제재’ 확정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두 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 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일부 정지는 영업인·허가또는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다

6개월 동안 일부 업무 영업 정지
과태료 각각 197억·168억 부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강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나설 듯

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장은 두 최고경영자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업계의 관심은 연임 갈림길에 선 손회장의 행보에 쏠린다. 전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손 회장 선임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승패와 상관없이 주총까지 ‘시간 끌기’는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전까지 가면 손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신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신한銀 ‘코로나 대출’ 심사 절차 간소화

신한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하이 패스’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여신 연기 상담을 신속히 완료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여신 의사결정 시스템인 ‘기업CSS’를 통해 2개월 후 여신 만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연기 심사를 완료한다. 이후에는 본점의 부장급 심사역이 직접 고객과 상담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체 약 3200개를 해당 지역 영업점에 안내해 고객의 여신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 업체 약 600개에 대한 대출 가능해도 2000억 원의 경우 필요시 최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프로세스도 대폭 단축한다. 기존 본점에 서 심사하던 일부 대출을 영업점장이 직접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본점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2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 연장 서류를 받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도 접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여신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감원 “美 금리인하, 단기적 충격 적을 것”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 수석 부원장은 “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규모는 총자산의 15% 수준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저하 등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열경쟁으로 고위험 상품 불안전 판매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미 연준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 제조업 위축 징후가 보이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 충격에 dau지수는 2.9% 급락했으나, 코스피는 각국의 정책공조 기대감에 외국인 순매수가 몰리면서 2.3%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7.4원 하락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롯데케미칼 “지역 주민께 죄송”…폭발 사태수습에 만전

서산 대산공장 NCC 화재
직원·주민 등 41명 부상
에틸렌 생산 24% 차질
재가동까지 수개월 소요

롯데케미칼이 4일 새벽 발생한 충남 서산 대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 주변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이날 사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고 후 즉시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부상자 회복을 포함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지역 사회가 조속히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4일 새벽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위 건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롯데케미칼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9분께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남사 크래킹 센터(NCC) 컴프레서



충남 서산시 대산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4일 오전 2시 59분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 설비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하우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큰불이 났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와 주민 등 41명(낮 12시 기준)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는 2명이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사고는 에틸렌,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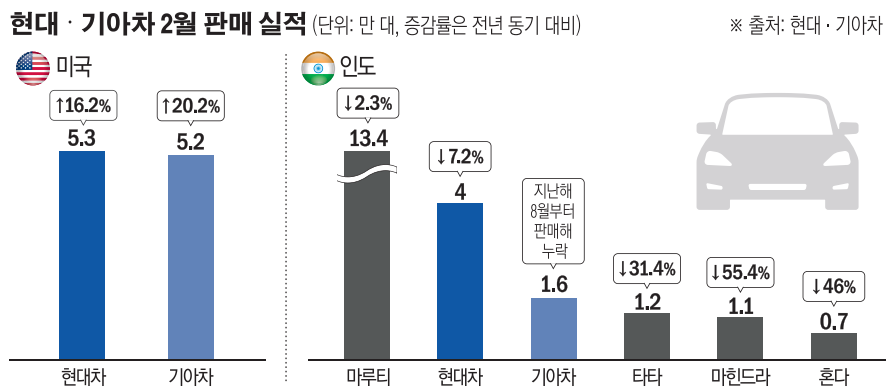
로필렌 제조를 위한 나프타분해공정 중 압축공정에서 불이 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다. 누출된 유해 화학물질은 없었다.

현재 NC(나프타크래커센터), BTX(벤젠/톨루엔/자일렌), BD(부타디엔) 등 9개 공장이 가동 정지 중이며, EOA(산화

에틸렌유도체), EG(에틸렌글리콜) 등 4개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장이 재가동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한다.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대규모 장치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재가동하는 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현대기아차, 미국·인도서 선전

내수 ‘코로나 불황’ 해외서 극복
현대차, 美 2월 5.3만대 신기록
기아차, 인도 점유율 3위에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내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는 선전했다. SUV 흥행에 힘입어 현대차 미국 법인인 역대 2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인도에서는 기아차가 현지 업체인 타타(TATA)를 제치고 판매량 3위에 올라섰다.

4일 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10만6777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9만546대)보다 17.9% 증가한 수치다. 개별 브랜드를 살펴보면 현대차의 2월 판매량은 16.2% 늘어난 5만3013대였다. 이는 현대차 미국법인의 역대 2월 판매 실적 중 최대치다. 전체 판매의 60%인 3만2059대가 투싼, 산

타페 등 SUV로 집계됐다.

기아차도 SUV 흥행에 힘입어 판매량이 무려 20.2% 늘었다. 지난달 기아차는 미국에서 5만2177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61%가 스포티지와 텔루라이드 등 SUV였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경기 둔화와 규제 강화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인도에서도 선방했다. 지난달 현대차는 인도에서 4만1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전년보다는 7% 감소한 수치지만, 경쟁 업체에 비하면 하락 폭이 적다.

같은 기간 인도 현지 업체인 타타는 31%, 마힌드라는 무려 55%나 판매가 급감했다.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브랜드도 판매가 각각 12%, 46% 줄었다.

특히 2019년 8월부터 셀토스를 선보이며 현지 영업을 시작한 기아차는 지난달 1만5644대를 팔며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아차가 인도에서 세운 역대 최대 월 판매량으로 타타와 마힌드라, 혼다 등을 제친 실적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기아차, 개인사업자 대상
첫 6개월 할부 납입 유예

기아자동차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가운데 초기 6개월 할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월 중 △모닝 △

레이 △카니발 △봉고 1톤을 출고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자유형 할부 기반)을 이용할 경우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초기 6개월간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30개월 동안 연 4%의 특별 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자유형 할부 정상 금리는 36개월 기준, 전 기간 5.0%). 김준형 기자 junior@

LG, 기숙사 내주고…삼성, 의료진 파견

재계, 코로나19 방역 동참
LG 구미·울진 550실 제공
삼성, 영덕 연수원서 진료

LG가 550실 규모의 경북 지역 기숙사와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단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시설은 383실 규모의 구미 LG디스플레이 기숙사와 167실 규모의 울진 LG생활연수원이다.

LG디스플레이 구미 기숙사는 경북 구미시 2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만5000㎡로 욕실을 갖춘 원룸 형태 267실과 방 2개·욕실 등을 갖춘 아파트 형태 116실로 최대 4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1995년 구미에 첫 공장을 설립한 이래 현재 구미를 중소형 플



LG가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울진 LG생활연수원(위)과 구미 LG디스플레이 기숙사.

라스틱 OLED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의료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치료

시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LG생활연수원은 임직원을 위한 휴양 시설로, 연면적 약 2만2000㎡에 167개의 독립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경증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 영덕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데 이어 이날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삼성의 의료지원 인력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3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를 위한 합동 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경증환자의 자가 체온 측정 확인 등 모니터링 역할을 맡아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을 지원한다.

송영록 기자 syr@

한진칼, 김석동 등 사외이사진 강화

이사회, 조원태 회장 재선임 등 25일 주총 안전 확정

한진그룹은 25일 열릴 예정인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을 재선임하고, 사외이사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25일 주총에서 표결할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조 회장의 사내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재선임안과 함께 사외이사 강화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칼 사내이사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



는 조 회장을 비롯,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등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사내이사는 3명이었지만,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공석이었다. 이에 조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을 새롭게 사내이사로 추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는 현재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

호사도 이달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사외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칼은 사외이사로는 금융전문가들을 대거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대상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등 5명이다.

기존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총 8명의 사외이사로 꾸러지게 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식물자원으로 바이오 제품 생산〉

GS칼텍스 미래 먹거리 ‘화이트 바이오’ 본궤도

‘화장품 원료’ 브랜드 ‘GreenDiol’ 론칭

천연물질 ‘부탄디올’ 세계 첫 상업생산·50개 특허출원
아모레 ‘헤라’에 공급…식품·의약품 첨가제로 응용 기대

GS칼텍스가 ‘화이트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브랜드 ‘GreenDiol(그린다이올)’을 론칭했다. 화이트 바이오는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해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뜻한다.

일반적 석유화학 공정이 아닌 미생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GS칼텍스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바이오 화학’ 사업이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해 하반기 2, 3-BDO(투, 트리 부탄디올)의 화장품 원료 브랜드인 ‘그린다이올’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2, 3-BDO는 부탄디올 중 유일하게 자연에 광범위하게 있는 천연물질로, 토양, 식물, 동물(인체, 벌 등) 등에 존재하고 있

다. 이미 천연식품, 식물 등을 통해 사람이 섭취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화학적 합성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기 어려워 그동안 상업화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수년간의 연구결과 끝에 2, 3-BDO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자연에서 샘플을 채취해 연구한 결과 우수한 생산 성능을 가진 미생물을 개발했다.

미생물이 바이오매스 유래 당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인 ‘발효’를 통해 2, 3-BDO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2, 3-BDO는 분리·정제 공정을 거치면서 순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탈색·탈취 공정을 지나 제품화된다.

2, 3-BDO는 일반적인 석유화학 공정으로 생산이 어려운 만큼 상업 생산이 이뤄지거나 제품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GS칼텍스가 군장산업단지



GS칼텍스의 ‘그린다이올’이 함유된 헤라 사워젤.

2만5454㎡(약 7700평) 부지에 2, 3-BDO 플랜트를 구축했다.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 결국 화장품 분야에 이를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GS칼텍스는 2, 3-BDO 관련 50개 이상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으며, 국제적인 인증 및 자격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GS칼텍스가 선보인 2, 3-BDO 기반 화장품 원료인 그린다이올은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생산됐을 뿐만 아니라 무자극, 무독성, 고보습 등 효과가 뛰어나다.

그린다이올은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벨벳나이트 퍼프드 사워젤’에 함유돼 출시되며 상업 제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GS칼텍스는 향후 국내외 다양한 화장품 업체에 그린다이올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GS칼텍스는 2, 3-BDO가 화장품 외에도 작물 보호제, 식품 첨가제, 의약품 첨가제 등 다양한 제품에 상업적으로 응용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활용처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2, 3-BDO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GS칼텍스는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게 됐다.

화이트 바이오 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충분하나, 레드 바이오(의약), 그린 바이오(농업) 분야에 비해 아직 국내에선 기술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GS칼텍스가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하며 화이트 바이오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화이트 바이오 시장은 2017년 약 280조 원(2389억 달러) 규모였으나, 연평균 8.9%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557조 원(47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항공·車 다음은 ... 전자업계 긴장

‘코로나’ 불황 장기화 우려

1월 스마트폰 출하량 6%↓

에어컨 3월부터 본격 영향

TV, 도쿄올림픽 개최 변수

전자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계는 항공·자동차에 이어 소비재인 IT·전자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과 국내 사업장 생산중단을 걱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생산 차질보다 경기 하강으로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이 나타난 곳은 스마트폰이다. 올해 1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2005만 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수요 시장인 중국의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도 대폭 줄어든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오프라인 방문객 감소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1~2월 오프라인 마케팅 매출은 대폭 감소했다. 대신 온라인과 TV 광고 마케팅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용한 건 사실이다. 최근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컨 시장은 3월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1~2월 에어컨 시장 수요는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보다는 최근 수년 동안 성장해왔던 저저효과 탓이다.

아직 에어컨 본격 판매가 일어나는 시즌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3월 실적을 봐야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에어컨을 주문하고 취소한 비율도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변수다. 통상 TV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질 때 다양한 프로모션이 더해지면서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최대 이벤트인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경우, 올림픽 효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은 업황 우려에도 15개월 만에 수출이 반등하고 D램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공장 생산 차질에 따른 실적 악화, 경기 하강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이 우려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자업종은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르노삼성 ‘XM3’ 사전계약 5500대 돌파

5대 중 1대 온라인 구매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SUV ‘XM3’가 사전계약 12일 만에 계약 대수 5500대를 달성했다.

4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 결과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신형 엔진 고성능 ‘TCe 260’이 전체 계약의 85.8%를 차지했다. TCe 260은 신형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얹어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급 사양을 선택한 비중도 높았다. 최고급 트림인 RE 시그니처(Signature)를

선택한 고객이 71%로 가장 많았다. RE 트림이 10.2%로 그 뒤를 이었다. 고객 10명 중 8명이 고급 사양을 선택한 것이다.

사전계약 고객의 연령대는 20~30대가 43% 이상이었다. 외장 색상으로는 ‘클라우드 핑’이 6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한, 전체 사전계약 중 21.3%는 온라인 채널로 이뤄졌다. 앞서 르노삼성차는 온라인 구매가 일상이 된 추세에 맞춰 온라인 계약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장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이 비대면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창욱 기자 woogi@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키워드립니다.

“청년창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창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창업교육

팀 프로젝트와 맞춤 코칭을 통해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라이프스쿨’과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코로나 블랙홀’ 갤럭시S20 특수까지 집어삼켰다

‘코로나19’가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최대어인 ‘갤럭시S20’ 판매 특수를 집어삼키고 있다. 감염 확산에 따른 우려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영업점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데다 사진 전용 고사양 단말기인 ‘울트라’ 모델의 생산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동사들은 당분간 교육지책으로 온라인 판매에 공들이는 동시에 울트라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른 단말기 모델로의 구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 3사는 지난 달 27일부터 갤럭시S20 시리즈의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은 이달 3일까지 진행됐고, 6일부터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공식 출시된다. 업계에선 갤럭시 S20

사전예약 물량을 60만~70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5만~30만 대, KT가 20만 대, LG유플러스가 15만 대 등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10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갤럭시노트10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물량이다.

업계는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는다. 통상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판매량이 2~3배 많은데, 올해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찾지 않고 있다.

쪼그라든 이동사 공시지원금도 판매 성적에 악재가 됐다. 이동 3사의 갤럭시S20 공시지원금은 17만~24만3000원 선으로, 전작인 갤럭시S10 출시 초기 공시지원

이통사 오프라인 판매 부진에 ‘울트라’ 모델 생산 부족 악재 정식 출시 앞두고 대책 부심 ‘불법 보조금’ 출혈 경쟁 우려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갤럭시S20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5G에 대한 요금 부담과 서비스 저하 역시 영향을 줬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데다, 8만~10만원의 부담이 되는 요금제보다 단말기 자체를 구입해 기존 LTE나 알뜰폰 업체 요금제로 사용하려는 ‘자급제폰’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진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울트라’ 모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전예약은 물론 개통 시기까지 이달 말로 늦춰지는 기현상도 더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이동 3사가 사전계약 일정을 일주일로 단축하고, 공시지원금도 대폭 줄였는데 이게 되려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6일부터 진행되

는 정식 출시부터는 갤럭시S20 판매율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때부터 이동 3사가 공시지원금 규모를 자율로 변경하고, 영업점에 추가 장려금 정책 등을 펼 수 있어서다. 소위 ‘불법 보조금 살포’ 등으로 출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통신사가 판매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만큼 스마트폰을 좀 더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한 영업점 관계자는 “정식 출시가 이뤄지면 사전예약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사마다 지원금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고가이면서 1억800만 화소를 자랑하는 울트라 모델은 당분간 품귀 현상이 지속돼 구입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삼성SDS, 유럽 금융시장 공략 나선다

유럽 30개국 서비스 중인 이스라엘 ‘크레도락스’와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협력

삼성SDS가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SDS는 3일 이스라엘 크레도락스와 블록체인 및 RPA솔루션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크레도락스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지급, 정산 등 거래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유럽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크레도락스는 자사의 지급결제 플랫폼에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적용해 보안, 거래처리 속도, 신뢰성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종철(오른쪽) 삼성SDS 유럽법인장(상무)이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협력 협약식 후 크레도락스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S

넥스레저 유니버설은 삼성SDS 자체 분산합의 기술(NCA)과 범용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API)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손쉽게 이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크레도락스는 삼성SDS의 AI 기반 업무 자동화(RPA) 솔루션 브리티웍

스(Brity Works)를 지급결제 플랫폼, 회계 시스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에 적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브리티웍스는 삼성전자, 삼성증권, 수협은행, 전자랜드 등 30여 기업에서 도입해 자재 현황 분석, 고객 응대, 판매 관리 등의 업무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사는 유럽 시장 내 전자상거래, बैंक, 핀테크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게 된다.

이갈 로템 크레도락스 CEO는 “크레도락스의 지급결제 플랫폼에 삼성SDS 블록체인 기술과 RPA 솔루션을 결합해 기업 간 거래, 시스템 운영, 회계 프로세스 등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원표 삼성SDS 사장은 “지급결제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크레도락스와 유럽에서 기업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기자 che@



LG U+ ‘신입사원 교육, 모바일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4일부터 약 한 달간 신입사원 91명을 대상으로 입문교육 전 과정을 모바일로 운영. 지난 3일 비대면 디지털 수료식을 개최했다. 특히 수료식은 U+배움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코로나 종식 뒤 V자 경기회복”

중기研 연구보고서

中 ‘보복적 소비’ 특수 기대
이커머스 직구 등 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 중국발 ‘보복적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의박재성 연구위원, 황경진 연구위원, 정유탕 책임연구원은 4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중기정책 과제: 중국발 경기회복을 모멘텀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사스와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조하면 사태 진정 국면에서 경기는 V자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비록 사태 종식을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경기회복에 관한 논의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거대한 경제력으로 코로나19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발 회복을 예상했다. 이에 경제적 회복력 발휘에 역점을 두는 정책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뒤 하반기 경기부양용 자금 방출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서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리 조치와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 외식, 문화오락, 뷰티 산업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뒤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소비 확대가 우리 중소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1.4%포인트 증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발 소비 특수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플랫폼의 직구 활성화 및 쇼핑 페스타 지원, 국내의 방역 능력과 공공보건 관리능력을 홍보하는 클린 코리아, 세이프티 코리아(Clean Korea, Safety Korea) 인식 확산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보복적 소비’에서 ‘보복’이라는 말이 부정적 어감으로 들리지만,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소비 요요(You-yo)’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중국 정부가 GDP 규모를 10년 전 대비 2배로 키우겠다는 이른바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의 마지막 해인 만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
‘코로나 극복’ 40억 기부

김범수(사진) 카카오 의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발벗고 나섰다. 카카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20억 원을 기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1만 1000주를 기부했다. 카카오 기부 금액은 총 40억 원이다.

또한 카카오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회 공헌 플랫폼 ‘같이가치’를 통해 전 국민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다음 등 회사가 보유한 플랫폼을 캠페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같이가치 기부’는 카카오톡 세 번째 탭인 #탭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술과 플랫폼 등 카카오가 가진 자산을 통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로봇 기업 도약”

박상현 대표, 창립 13주년 포부
“인류 건강수명 10년 연장 실현”

바디프랜드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헬스케어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고 ‘인류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일 박상현(사진) 바디프랜드대표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세 가지 다짐을 담은 ‘1·3 선언’을 천명했다. 인류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안마의자라는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목표와 ‘오감초격차’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융합R&D센터 성과를 본격적으로 공개해 나가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이다.

박 대표는 “13년간 대한민국은 물론 안마의자 시장 세계 1위로 올라서는 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준 전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기적 같은 성장 경험을 밑거름으로 기술, 디자인,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 등 5가지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일컫는 ‘오감초격차’ 경영을 통해 메디컬 제어 기업, 헬스



케어 로봇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명에 이르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진행해 왔던 R&D의 성과를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양방, 한방 7명의 전문의와 뇌공학자,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해 융복합 R&D 조직을 통해 다양한 마사지 기법과 의학적 효과 검증,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부터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 △의료용 안마의자 △이명 마사지 △명상 마사지 등 진보한 헬스케어 기술들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박 대표는 “안마의자를 메디컬 제어와 헬스케어 로봇으로 진화시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며 “헬스케어 산업의 첨병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일구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현대그린푸드, 식품제조 출사표 B2C 외연 확장 ‘정교선 빅픽처’

성남 ‘스마트 푸드센터’ 가동
HMR·밀키트 등 생산 계획
실적 개선 돌파구 역할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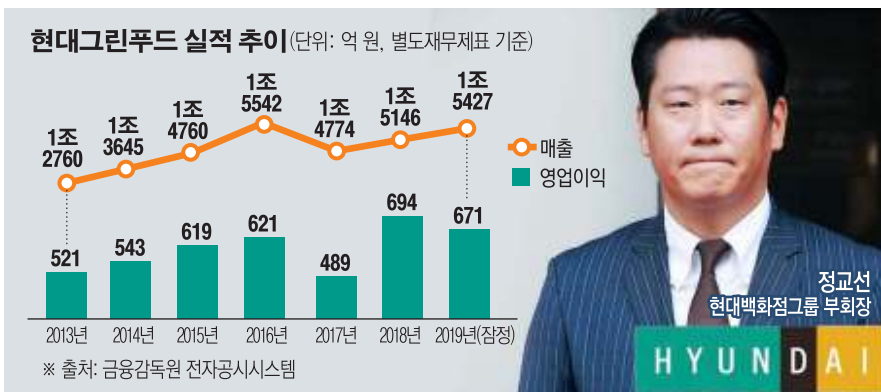
현대그린푸드가 식품제조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단체급식(푸드서비스), 식자재 유통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B2B(기업 간 거래)에 집중돼 있던 사업 영역을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확장해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정체돼 있어 미래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그린푸드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014년 1조3645억 원에서 이듬해인 2015년 1조4760억 원으로 8.1% 성장한 이래 수년간 1조5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B2C 시장 공략을 위해 우선 현대그린푸드는 HMR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그린푸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HMR 제품은 현대백화점 식품관과 온라인몰 등을 통해 시판될 전망이다. 신세계푸드가 ‘피코크’ 등의 브랜드로 HMR 제품을 생산해 이마트, SSG닷컴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식품제조사업 진출의 밑그림은 박흥진 현대그린푸드 사장과 정교선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이 그렸다는 분석이다. 박 사장은 2014년부터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정교선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주식의 23.8%를 가지고 있는 회사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다.

정 부회장의 형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박 사장과 함께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에 올라 있으나 현대백화점 경영



에 집중하고 있고, 사실상 현대그린푸드 경영은 정 부회장이 맡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경기도 성남시 ‘스마트 푸드센터’를 가동하면서 B2C와 B2B 식품제조사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착공한 ‘스마트 푸드센터’는 현대그린푸드의 첫 번째 식품 제조 시설(2개 층)로 연면적 2만㎡(약 6050평) 규모다.

스마트 푸드센터는 단체급식업체 최초로 단일공장에서 B2B(기업 간 거래)와 B2C 제품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하이브리드형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이브리드형 팩토리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와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 푸드센터’에서는 동시에 300여 종의 B2B·B2C용 완제품 및 반조리 식품을 하루 평균 50여 톤(약 20만 명분)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총생산 가능 품목은 단체급식업체 최대인 1000여 종으로, 단체급식업체 제조시설 평균(100~250종) 대비 3~10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회사 측은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1000여 종) 중 70%는 완전 조리된 가정간편식(HMR)과 반(半)조리된 밀키트(Meal Kit) 등 B2C 제품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MR 시장에서는 냉동형 제품보다 냉장형 제품이 양질로 평가되는 만큼 현대그린푸드는 냉장형 간편식 중심의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특히 ‘연화식(軟化食)’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화식은 대표적인 케어푸드 제품으로, 일반 음식의 맛과 형태는 유지하면서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씹거나 삼키기 좋게 만든 음식이다. 현대그린푸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연화식 기술을 개발하고 이듬해인 2018년 소비자에게 선보인 바 있다.

B2B 부문의 경우 단체급식용 전처리(CK, Central Kitchen) 제품과 식자재 사업용 특화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아울러 제과제빵 설비를 갖춰 호텔 컨세션 사업 경쟁력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김해근 현대그린푸드 전략기획실장은 “제품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 안정화를 통해 생산 가능 품목을 내년 상반기까지 1200여 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푸드센터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B2C 식품제조기업으로서 입지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코로나 극복 #힘내라 농어민 유통업계, 농어민 판로 뚫는다

판매 마진 줄이고, 할인율 높여 농·수산물 소비 확대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농어민 돕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국내 매출이 쪼그라들고, 한국산 농수산물을 꺼리면서 수출 역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은 최근 6주(1월 1일~2월 11일)간 전년 대비 13.8% 감소했는데 수출 효과 상품인 김을 비롯해 광어, 참치 등 10대 수산물 수출이 줄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물 소비심리도 위축돼 지난달 신세계백화점의 수산 장르 실적은 전년 대비 37.4% 역신장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농수산물 판매마진을 낮추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해 농어민 판로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산 수산물을 한데 모아 특별가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8일까지 전 점포 수산 코너에서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전남 완도의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당일 항공 직송된 제주산 대갈치(1마리, 1만9900원), 완도 양식 전복(4마리, 1만900원), 남해산 손질 새조개(100g당, 3900원) 등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제안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수출과 내수 판매 부진

에 빠진 참치 어가를 돕기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원양산 모듬 참치회(360g)를 반값인 1만490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역대 최대 물량인 35톤의 참치를 준비했다.

이마트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이 ‘트럭 복합입관수송’을 금지해 2월 일본에 수출하는 참치 물량이 줄었고, 참치 원물의 소비는 참치 전문점과 무한리필 등 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외식 자제 문화로 이마저도 소비가 줄었다”며 “유통업체가 마진을 줄이고, 협력사도 납품가를 줄여 공동으로 부담해 이번 행사에서 참치를 반값에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산지 직거래 전문 할인점 김스클럽은 코로나19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전남 해남군 빨간배추 23개 농가의 배추 50톤을 일괄 구매해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김스클럽 35개 매장에서 정상가의 40% 가격에 판매 중이다.

김스클럽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 퍼지면서 산지를 찾는 소비자가 줄자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경북 청도군의 한재미나리 재배농가 돕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청도군한재미나리는 청도군 지역 농가에서 연 2000톤이 넘게 생산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김스클럽은 17일까지 청도한재미나리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전국 매장에서 산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랜드리테일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가돕기 행사는 도청에서 요청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편의점 PB상품, 해외 영토 넓힌다

이마트24 ‘아임이’ 스낵·민생휴지 등 15종 호주·홍콩 수출

국내 시장에서 성장이 정체된 유통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편의점들도 자체 브랜드(PB) 상품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25와 CU에 이어 이마트24도 도전장을 던졌다.

이마트24는 PB 브랜드 아임이(I'm e) 상품 15종, 총 2000여만 원 물량을 호주와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7월 이전 상호인 ‘위드미’ 당시 자체개발 상품인 숙취해소 아이스크림 ‘견뎌바’ 4000개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한 후 처음이다.

호주로 수출하는 상품은 아임이 스낵 13종, 민생휴지(27×30롤) 1종 등 총 14종, 2만여 개로 시드니 교민 슈퍼마켓 및 중국·베트남계 아시아인 슈퍼마켓 등 110여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주요 상품

은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신당동 원조 삼떡볶이스낵, 인절미스낵, 왕소리향과자, 고구마향과자 등이다.

홍콩에는 민생휴대용티슈 70매(3입) 7200개가 홍콩 가정용품 체인점 JHC(Japan Home Centre)에 입점된다. 이들 소매점에서 한국 편의점의 PB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마트24는 동남아 등으로 수출 판로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백지호 이마트24 MD담당 상무는 “올해 해외 수출액 총 50억 원을 목표로 호주, 홍콩 뿐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PB브랜드 ‘유어스’ 상품 수출길에 올랐다. 같은 해 8월 베트남 GS25에 PB브랜드인 ‘유어스’ 상

품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홍콩 유명 마트 ‘파크앤샵’에 PB 냉동피자와 핫바, 등심돈가스 등을 수출했다. 현재 대만, 홍콩 등 17개 국가에 약 3000여 개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해외 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수출을 시작한 2017년 약 2억 원의 성과를 올린 후 2018년에는 11억 원, 지난해에는 약 30억 원까지 수출 규모를 늘렸다. 2021년까지 수출 목표액은 100억 원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현재 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대만, 몽골, 베트남, 태국 등 10여 개국으로 다양한 PB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겹커 피아메리카노와 헤어루 청량과주 컵라면 등이며,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대비 4.6배 신장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니베라, 칼슘 보충 전기식 2종 출시

중장년용 ‘그린칼슘 플러스’·성장기 아이용 ‘알키드 징크’

유니베라가 칼슘 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그린칼슘 플러스’와 ‘알키드 징크’를 출시한다.

‘그린칼슘 플러스’는 칼슘이 부족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며 ‘알키드 징크’는 한창 성장기 아이에게 필수 영양

소를 보충해주는 제품이다.

‘그린칼슘 플러스’는 칼슘·마그네슘·비타민D·비타민K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체내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잘되는 해조·산호 복합 칼슘을 500mg(1일 4정 섭취시)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그네슘을 250mg, 2:1(칼슘:마그네슘)로 배합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하이트진로, 참이슬 모델에 아이유 재발탁

하이트진로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를 참이슬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아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에 사랑을 받으며 지명도와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며 “아이유만의 깨끗한 이미지가 참이슬 역대 모델 중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2014년부터 4년간 참이슬 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최초 발탁 당시 색다른 콘셉트 일색이던 주류광고 모델 시장에 깨끗하고 차별화한 이미지로 신선함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성택 마케팅실 상무는 “다시 한번 최고의 모델과 함께하게 돼 기쁘고 돌아온 아이유와 참이슬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1兆 클럽 제약사, 올해 경영 화두는 ‘내실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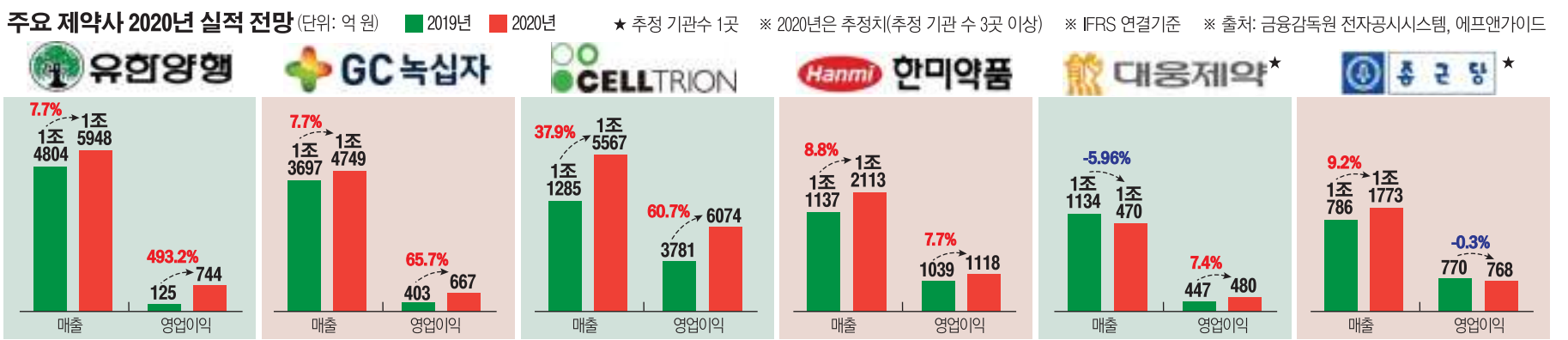
국내 제약업계가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빅5’ 제약사가 동시에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은 물론 셀트리온까지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는 업계의 연구·개발(R&D) 성과가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제약사들이 올해도 1조클럽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유한양행을 필두로 GC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등이 나란히 몸집을 불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이래 상위 제약사들은 차근차근 1조클럽에 입성했다. 2019년에는 셀트리온과 종근당이 새롭게 합류하고 대웅제약도 개별 기준으로 처음 1조 원을 넘겨 업계의 외형 성장을 확인했다.

우선 올해는 셀트리온이 연 매출 1조 5000억 원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현재 다수 기관이 내놓은 셀트리온의 2020년 매출 추정치(컨센서스)는 1조5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조1285억 원보다 37.9% 늘어난 규모다. 만일 이에 부합하면 셀트리온은 단숨에 유한양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1991년 설립된 회사가 채 20년도 되지 않아 초고속으로 업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



셀트리온 ‘렘시마SC’ 유럽 직판·‘트룩시마·허쥬마’美시장 확대 年매출 1.5兆 목표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에 기술료 유입 매출·수익성 동시개선 기대 높여

한미약품 ‘톨론티스’美 FDA 허가… GC녹십자 ‘헌터라제·그린진에프’中 진출 앞뒀

주사 제제 ‘렘시마SC’를 유럽에 선보였다. 렘시마SC는 ‘직판’ 프로젝트 선봉장으로, 연말까지 유럽 TNF- α 억제제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9조2000억 원 규모의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도 신규 출시한다.

지난해 실적에서 아쉬움을 남긴 유한양행은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는 것이 관건이다. 올해 매출 컨센서스는 1조5948억 원으로 집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환경은 여전히 녹

록지 않지만, 잇따른 기술수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얀센에 기술수출한 ‘레이저티닙’이 글로벌 임상에 진입하면서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고, 길리어드사이언스와 베링거인겔하임에서도 기술료가 유입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회사 유한킴벌리의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유한킴벌리는 국내 마스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도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장

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톨론티스’가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면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기술료가 들어온다.

지난해 호실적을 이끈 자체 개발 전문의약품들은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아모잘탄’을 비롯해 ‘로수젯’, ‘에소메졸’, ‘팔팔’ 등 유비스트 원외처방 기준 100억 원 이상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이 14개에 달한다.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와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생산 수율을 높인

수두백신 ‘배리셀라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올해 매출은 1조 5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는 올해 제약사들의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하자 영업사원들이 대부분 재택 근무로 전환하는 등 전통 제약사의 영업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의약품 처방도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대면 영업이 막히고 신제품 마케팅도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는 항암제와 류머티즘관절염 등이 필수 처방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 셀트리온 정도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 美암연구학회 힘쏟는 K바이오

연구성과 알리는 기회의 장 에이비엘바이오·종근당 등 전임상 데이터 발표 줄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암연구학회(AACR) 참여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AACR는 90개국 이상 4만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인 미국의 3대 암학회 중 하나다.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연구자가 모여 암에 대한 임상결과보고, 혁신기술 소개, 최신 암 치료 동향 등을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별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꼽히고 있는 AACR가 잇따른 임상 실패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모두 22개의 포스터 발표와 함께 신규 물질의 동물 테스트에서 나타난 항암효과 규명에 관한 초기 단계의 연구결과물들을 선보였다. 또 신약 후보물 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일종의 플랫폼 기술도 공유했다.

올해 AACR에선 이달 24일 초록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20%대의 낮은 반응률을 보이는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병용투여 요법 등 다양한 시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BI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23.9% 성장해 2022년 758억 달러(약 9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이중항체 치료제 시장 역시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 93억 달러(11조 원)까지 가파르게

미국암연구학회(AACR) 파이프라인 발표 확정 기업

기업명	발표 내용 및 프로젝트	임상 단계
종근당	이중항암항체 신약 CKD-702	전임상
엔지켐생명과학	EC-1871만 ICI/ EC-18-202	전임상/임상2상
에이비엘바이오+유한양행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전임상
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ABL503 · ABL111(아이맵 바이오파마)/ Grabody TM T 플랫폼 이용한	전임상
	면역항암제 관련 연구	
제넥신	GX-188E+키트루다	임상2상 중간 결과
유타렉스	항체치료제 EU103	전임상
지아이이노베이션	면역항암제 GI-101	전임상
투비소프트	알로페론과 알로스타틴 기반 면역항암제	전임상

※ 한미약품, 파렙신, 오스코텍, 이수업지스, 펄트론, 큐리언트, 영진약품, 녹십자 등 참여 예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CAR-T,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 등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트렌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참여 기업들 역시 트렌드를 반영한 핵심 파이프라인 발표를 확정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중항체 치료제 분야로는 국내 기업 최초로 임상결과를 공개한 바 있는 에이비엘바이오가 가장 많은 4건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에이비엘 관계자는 “이중항체 플랫폼(Grabody T)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관련 연구를 포함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ABL503과 ABL11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유한양행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전임상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종근당도 이중항암항체 CKD-702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 발표로 바이오 신약의 가능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제로는 제넥신이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GX-188E와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2상 중간 결

과를 발표한다. 업계에선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비교해 ORR(객관적 반응률)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신약물질 EC-18의 면역항암제 병용(EC-1871만 ICI) 및 항암방사선 유발 구강점막염(EC-18-202)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성과 2건을 선보인다.

지아이이노베이션도 3중 타깃 기능을 가진 이중 융합단백질인 GI-101에 대한 발표를 확정지었다.

유타렉스는 항암항체 치료제 EU103의 전임상을, 투비소프트는 알로페론과 알로스타틴 기반 면역항암제 병용 처방에 대한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임상 파이프라인 외 톨론티스 등 다양한 성과가 있는 신약후보물질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AACR 초청 구연발표를 진행한 영진약품도 표적항암제 YPN-005 물질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기업별 파이프라인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보툴리눔 독신 군주 공방’ 재점화

메디톡스 “군주 도용 입증” vs 대웅제약 “허위 자료 제출”

美ITC 변호사 ‘군주 사용 의견서’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보툴리눔 독신 군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다시 달아올랐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군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군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가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군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군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군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다.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아직 임상 단계란 점에서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 요청에 대해서도 양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 합의를 제안했다”면서 “메디톡스와 합의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ITC 소속 변호사의 서면 내용을 메디톡스가 언론을 통해 공개해 ITC 재판부의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앨러건과 함께 보툴리눔 군주와 보툴리눔 독신 제제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품목허가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두백신 ‘배리셀라주’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리셀라주는 기존 수두백신처럼 바이러스 약독화 과정을 거친 생백신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생바이러스 함유량을 높이고 안전성도 개선했다.

회사 측은 배리셀라주가 생후 12개월 이

상, 만 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태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다국가 임상 3상에서 대조약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공정도 개선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앞으로 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거쳐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급락장서 대박”… CB 전환 청구 ‘붐물’

코스닥 벤처펀드 발행 사채 전환권 행사 기간 도래
임상·M&A 등 호재에 주가 급등… 차익 실현 나서
일부 기업 청구 물량 남아 개인투자자 ‘오버행’ 우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락장 속에서도 일부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로 잡잡한 수익을 내고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 영향으로 재작년과 작년 초 대거 발행된 사채들이 전환권 행사 가능 기간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오른 일부 상장사들에서 청구 바람이 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선 ‘때물 폭탄’이 등장하면서 오버행(과잉공급)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급락장 속에서도 CB 전환권 행사 26% 늘어 =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월 이후 CB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코스닥 기업은 총 54개로, 전년 동기(43개)보다 25.6% 늘었다. 전환권 행사 건수 자체도 84

건으로 작년보다 33.3% 높은 수준이었다.

CB 투자자가 복수에 걸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 기간에 2번 이상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기업은 14개에 달한다. 에스티큐브, 조이시티, 인트로메딕, 이에스브이, 덕신하우징, 누리플랜, 대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화신테크, 마이크로텍, 포티스, 코센, 아이텍, 두울산업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기업 대부분은 내부 호재에 따라 급락 장세를 이기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가 많았다. 임상 진척이나 M&A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2·3일 두 번에 걸쳐 CB 전환권이 행사된 에스티큐브의 경우 최근 삼삼바이오로직스와 신약후보 물질인 ‘STT-003

CB 전환권 행사된 기업

(2번 이상)

종목	행사 날짜	현 주가 (3일 종가)
에스티큐브	3월 3, 4일	1만3300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월13, 24, 25일	3420원
누리플랜	2월14, 20일	5320원
대원	2월18, 20일	9900원
덕신하우징	2월14일, 3월 2일	1435원

항체’에 대한 위탁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이틀 내 주가가 35% 넘게 뛰었다.

전환권이 행사된 물량은 2018년 4월 발행된 5회차 CB 중 123만4329주다. 작년 5월부터 전환청구 가능 기간이었지만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매도차익을 보기 위해 CB 투자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CB 전환가는 1만520원, 3일 종가 기준으로 물량을 통틀어 계산하면 34억3100만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2월 중 3번에 걸쳐 CB 전환권이 행사된 화신테크는 M&A 이슈로 올 들어 지속적으로 주가가 뛴 경우다. 화신테크는 지난 달 3일 글로벌 바이오기업 계열사로 최대

주주 변경이 완료되면서 신약개발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최대주주가 바뀐 당일 상장주식 수 대비 14%가 넘는 물량의 3회차 CB 전량에 대한 전환권도 행사됐다. 이날 주가는 731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연이어 같은 달 11일과 12일 398만 주 규모의 7회차 CB 물량도 전환 청구돼 27일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해 전환권이 행사된 기업도 있었다. 영화 ‘기생충’이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제작사 바른손이 엔에이와 그 관계사 바른손이 대표적인 경우다. 각각 상장주식 총수 대비 3.08%, 2.99%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돼 지난달 말 상장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다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분류된 랩지노믹스의 CB 투자자도 지난달 20일 35만8605주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때물’ 만기이자율 영향도… 개인투자자는 오버행 우려= 급락장 속에서도 전환권 청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재작년

대거 발행된 CB 만기일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점도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메자닌 채권 규모는 2조4417억 원이다. 이 중 CB가 1조9035억 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시기 발행된 CB의 경우 코스닥벤처펀드 영향으로 만기이자율이 상당히 낮거나 아예 ‘0’인 경우도 많다. CB 투자자로선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경우엔 전환권을 행사해 매도차익을 보는 게 최선이고,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도 주식으로 보유해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내 CB 전환권이 행사된 기업 중에선 전환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선 오버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기업 중 일부는 전환권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당한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에스티큐브의 경우, 전환권이 행사된 5회차 CB에서 아직 115만9000주, 122억 원에 가까운 잔여 물량이 전환 가능한 상태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금융’ 조달 문제없어”

작년 업황 부진 적자전환 했지만
인수 후 시너지 긍정적 평가 작용
외부 자금 조달 낙관적 전망도

제주항공이 역대 최악의 항공 업황 속에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 제주항공도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인수 자금은 최대한 외부 조달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일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 1000주(51.17%)를 취득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545억 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MOU 체결 당시보다

제주항공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 억 원, %, 배 / 연결기준) *2019년 3분기 누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7476	9964	1조2594	1조746
영업이익	584	1013	1012	122
부채비율	121	142	170	331
이자보상배율	140	224	68	-2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프앤가이드

15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계약금으로 지급한 120억 원을 제외한 425억 원을 4월 말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인수 시점을 두고도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항공업은

실적 직격탄을 맞았다. 인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제주항공은 시장 재편을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재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황 부진으로 제주항공 역시 자금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 연결기준 제주항공의 영업손실은 329억 원으로 전년 1012억 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709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최근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제주항공의 현금 유동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제주항공의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은 3267억 원 규

모다. 사업보고서가 미공시됐지만, 증권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규모를 2000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이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크레딧 라인을 통한 단기차입금 조달 및 CB 발행으로 현금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인수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대목은 단순 재무지표상으로는 보면 인수금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6년 121%→2018년 170%→2019년 3분기 331%까지 급등했다. 특히 작년처럼 업황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끼친 당시 순부채비율은 2018년 -58%에서 지난 3분기 72%로 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140배

에서 작년 3분기 -2배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상환 능력도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인수 후 시너지는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도 파악된다. 시장에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총 운송 대수는 전체 시장의 40% 수준으로 향후 독보적인 LCC업체 1등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비행공 자유화 노선 운수권 확보와 단거리 노선 내 경쟁 완화 등 규모의 경제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M&A 시장 위축으로 금융회사들이 인수금융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제주항공이 외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관계사 성장 덕에… 지분법이익 반등 “에코마이스터, 연체 또 있었네”

상장사 재무 분석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도 지분법이익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사들의 성장이 한몫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조4804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75% 줄어든 125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66억 원으로 37.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회사 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으로 종속회사의 매출 감소와 함께 R&D 비용 및 판매비 증가 등을 들었다. 종속회사들과 달리 관계회사들은 지분법이익을 통해 유한양행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일반적으로 종속회사는 모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계열사를, 관계회사는 20~50%를 가진 계열사를 지칭한다. 종속회사의 실적은 모기업의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되는 반면, 관계기업의 경우 지분법이익에 반영된다. 유한양행의 지분법

유한양행 지분법이익 추이
(단위 : 원, 2019년은 주요 관계사 총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유한킴벌리	567억	415억	336억	379억
유한크로락스	71억	27억	27억	33억
한국안선	13억	52억	11억	58억
전체	651억	465억	317억	474억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작년 영업이익의 75% 줄었지만 유한킴벌리 등 당기순익 증가 474억 ‘지분법이익’으로 계상

이익은 2016년 651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465억 원과 317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했다.

유한양행의 지분법이익 대부분은 자회사 유한킴벌리가 책임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의 지분 30%를 보유 중이다. 이러한 유한킴벌리가 유한양행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관계사 전체가 가져다 주는 이익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간 유한양행의 지분법이익이 줄어든 것은 유한킴벌리의 실

적 감소와 연동된다.

다행히 유한킴벌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유한양행에 가져다 준 지분법이익 역시 반등했다.

유한킴벌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한 1410억 원으로, 이 중 379억 원이 유한양행의 지분법이익으로 계상됐다. 이 밖에도 한국안선 58억 원, 유한크로락스 33억 원, 유칼릭스 4억 원 등 주요 관계사들의 지분법이익이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얻은 지분법이익은 474억 원이다.

다만 지분법손익 규모가 작은 관계사들의 현황까지 담은 사업보고서는 아직 공시되지 않은 만큼, 최종 발표될 총 지분법이익은 자금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관계사들의 성장 속에 올해는 모기업인 유한양행의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한신평, 우리銀 차입금 연체 확인 신용등급 ‘B-’서 ‘CC’ 하향 조정

3억 원에 불과한 차입금 연체로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에코마이스터에 또 다른 연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마이스터는 취약한 현금 창출력과 유동성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에코마이스터는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추가적인 연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잔존 차입금·사채의 상환 스케줄 및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2월 15일 연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코마이스터는 1982년 설립된 환경 및 철도사업 업체로 2018년 3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속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철강과 비철금속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환경사업과 철도차량 차륜가공기계, 철도차량 계측 및 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철도사업을 영위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남북경협 철도주로 분류되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상장 이후 실적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상장 직전인 2017년 연결기준 237억 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147억 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85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도 매출은 187억 원으로 다소 회복했지만 3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철도차량 가공 부문에서 40년 이상의 업력과 자체 기술력, 생산 노하우 등 독점사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사업구성과 제한적인 시장 규모가 성장에 제약이 됐다. 슬래그 처리 역시 신규 업체와의 거래계약

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연속된 적자로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특히 2018년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순손실이 유동성 악화를 키웠다. 2013년 인도 철강업체와 합작사(EBI)를 설립해 슬래그 처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철강산업의 악화로 매출채권과 대여금 등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담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2017년 115.0%였던 부채비율은 1년 뒤 358.5%로 뛰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349.0%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을 웃돈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7년 41.7%에서 2018년 52.6%, 작년 3분기 55.9%로 높아졌다. 2년간의 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밀도는 반면 차입 부담이 커 결국 차입금 3억 원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에코마이스터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3억 원 상황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회사 측의 차입상환 및 이자지급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판단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낮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신용평가도 이번 추가 연체 사실을 이유로 에코마이스터의 BW 신용등급을 ‘B-’에서 ‘CC’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도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자체 현금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어렵고, 외부자금 조달은 실현 가능성과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에코마이스터 관계자는 “연체 채권의 문제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실적 등은 공정공시 문제가 있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정부 ‘음압 구급차’ 136대 구매 발표 오텍, 400억대 신규 매출 기대

오텍이 정부의 음압 구급차 대량 구매 발표로 4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 대비 40% 수준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36대를 전액 국비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음압구급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오텍뿐이다. 특히 오텍이 2016년 이후로 음압구급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음압구급차 매출은 고스란히 신규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텍은 2018년 개별 기준 107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실적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해 매출도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텍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과 2016년 음압구급차를 개발해 서울소방본부, 국립의료원 등에 32대를 납품했다. 이후 음압구급차 매출은 거의 없다가, 지난해 쏘라티 음압차 1대를 팔았다.

오텍에 따르면 쏘라티 차종 기준 음압구급차의 가격은 약 3억 원이다. 대량 구매 조건 등 부가적인 사항 없이 단순 계산으로 136대를 공급할 경우, 408억 원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는 셈이다.

박기영 기자 pgy@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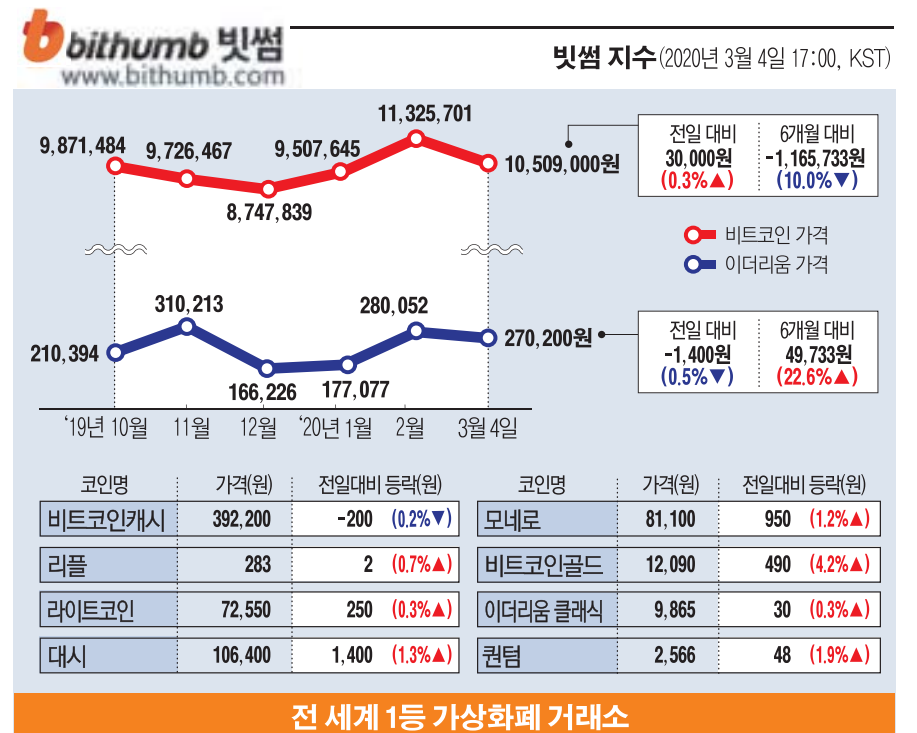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__&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19... 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확진자 나온 7곳 중 2곳만 재개
소규모 현장 더하면 숫자 늘어나

분산 작업에 근로자 통제 어렵고
마스크 수급 늦어져 공기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건설 현장까지 덮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물론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일시 멈추는 현장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건설인력 수급은 물론 공기(공사 기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건설 현장은 모두 7곳이다.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대학교 확장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 공사 △경북 김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신축 공사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 △

포항 해병대 군수단 공사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왔다.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이 중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은 소독작업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했고, 분당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도 이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3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도 8일 공사를 재개한다. 가장 먼저 확진자가 나왔던 성주대학교 확장 공사장은 현장 인력 10여 명이 여전히 격리 조치된 상태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멈춘 곳은 공식적으로는 5곳이다. 하지만 도로나 군대 내 시설 등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한 지방 곳곳의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멈춰선 공사현장은 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미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각 공사 현장에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발열 검사를 일일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출입국 기록 조회, 중국 방문자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 입구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접촉 여부 확인 등 대응 지침도 진작부터 강화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수행하거나 단체로 숙소생활을 하는 특성상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

건설 현장 내 마스크 수급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고, 어렵사리 주문을 넣어도 주문이 취소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기존 마스크 공급업체에 사정해서 주문을 넣었지만, 배송

이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겨우 구한 물량도 주문했던 수량의 절반에 불과했다”라고 토로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KF94·KF80)처럼 수급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단가 낮거나 수급이 원활하진 않다”며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은 특성상 근로자들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애를 먹는다. 통상 건설현장은 2인 1조 등 한 팀으로 분산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은 무더기 감염은 막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챙기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한 공기 지연과 그로 인한 분쟁, 손실 등에 대해선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가 연장된다고 해도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공사가 완성된 경우엔 준공검사 기한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연장된다”며 “공기 연장이나 중단 등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탄현 지구지정

교통 편리한 생태 자족도시 조성
수도권 18곳 19만6000호 완료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고양 창릉과 탄현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고양 창릉과 함께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부천 대장은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8곳 중 19만6000호(총 면적 3497만㎡)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 대장지구 등 나머지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일자리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만든다. 자족용지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 허브’,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한다.

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신촌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만3000가구(41만6000㎡)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탄현공원)으로 조성한다.

문선영 기자 moon@

대전 아파트 중위값 2억7519만원... 광역시 중 최고

1년 새 5570만원 올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아파트 중위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조사됐다.

4일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817만 원이었다. 2억4187만 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만 원 올랐다.

6대 광역시 가운데선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이 가장 높았다.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8년 2월 2억1949만 원에서 지난달 2억7519만 원으로 25.4%(5570만 원) 올랐다.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대전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세 번째로 낮은 광역시였

다. 대전이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1위에 올라선 건 2013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정부가 대전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대전의 경우 비규제지역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조건이 충족되지만,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총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비규제 영향이 지속된다면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2019.12.21.토 —
2020.04.05.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핀란드 디자인 10000년

MAN, MATTER, METAMORPHOSIS - 10 000 YEARS OF DESIGN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KANSALLISMUSEO
THE NATIONAL MUSEUM OF FINLAND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은 불법”

대법 “단말장치 부정 이용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원심 파기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
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허위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설된 유심(USIM)칩을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유심’을 사용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벌 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한다.

2심은 “단말장치의 의미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며 ‘유심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 이용

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심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된다”고 봤다.

이어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반대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 범주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타인이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나 유심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코로나19에... 영상재판

코로나19에... 영상재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이 휴정 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 화상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배척”

노태약<사진> 대법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노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을 향한 국민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재판은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도 중요하고,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 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



노대법관은 “패소한 당사자에도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정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생략했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서울시, 코로나19 '심리 방역' 나선다

‘코로나19 심리지원단’ 발족
시민들 감염 불안 극복 도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 시민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코비드(COVID)19 심리지원단’을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전
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서 기
짜누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
대, 사재기, 혐오 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시민의
심리 안정과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활

동한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장을 단장으로, 응급의학과와 내과 교수, 정신건강 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한다.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로 △격려 백신-나를 격려하기 △긍정 백신-좋은 일 하기 △실천 백신-수칙을 솔선수범 실천하기 △지식 백신-재대로 알기 △희망 백신-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정보 백신-도움받는 법 알아두기 △균형 백신-이성의 균형 유지하기 등을 제시한다.

심리지원단은 앞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심리안정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홈페이지, SNS 주요 콘텐츠로 카드뉴스를 활용한 '마음처방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시민에게 보내는 마음편지 '치유레터'를 제작, 적극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운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지적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2020. 03 VOL.03

My Life

나날과 부성 매달리는 화해 때를 노스

생생 부동산 현장 '호재 물결' 마곡지구

별관과 스킵트, 나어짐과 조화로운 삶

정기구독 신청

1년 1만 원 / 1년 구독: 10만 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COVERSTORY 하우스의 품격을 짓다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스 플래닝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 부담 "넘겨라"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 쉬고 싶을까?"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더불어 숲
다산은 세를 짓고
초야는 그림을 그렸다

고수열전

'악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화 작가 권성생(1937~2007) 선생께겐 남이 없었다. 시인은 물론, 보잘것없는 식도동물이나 강아지 동조자 그 어떤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걸렸던 어느 여공날, 별칭계 타돌아가는 버스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계단 인생은 아내와 함께”
아구 감독 유승민

현미처럼 남만이 좋아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한지 같은 여자
국민가수 김성희의 삶과 사랑
국민가수 김성희의 삶과 사랑

을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변호사 박연재

Living & Home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잇 아이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쩌면 뒤편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뚝뚝 샘솟는다. 따뜻한 봄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지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주택은 괜찮는데, 상가는 '글썽'..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바·음·심 못지않게 핫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홍매이드 사찰음식+임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재택수업 인프라 비용 부담”… 대학들, 정부에 지원 요청

대교협, 대학 내 자체 장학금 비율 5% 교육부 부담 제안
학생들 등록금 인하 요구에 “네트워크망 확보 등 비용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재택 수업을 준비 중인 대학들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중 하나인 대학 내 자체 장학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자체 장학금 유지 비율이 20% 이상인데 이 중 5%를 교육부가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결과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중 교내 장학

금 비율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재정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재정난이 고개를 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수업 방식에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재택 수업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에 따르면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등 중국 유학생 2000명 이상인 대학을 포함해 213개 일반대학의 2019년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이다. 지난해 오프라인 강의실 강좌는 총 58만8450건이며, 온라인 강좌는 5456건에 그쳤다.

황 사무총장은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4일 경기도 단국대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구 응원 메시지를 창문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못 듣는다는 점에서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학들은 네트워크망 확보, 촬영 장비 등 기타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간다”면서 “무엇보다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이 예

상보다 적어 휴학신청도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교협의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의 교내 장학금 비율 완화 주장은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내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대교협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다”면서 “해당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대학이 개강을 1~2주 연기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자 원격 수업, 과제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을 권고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정교사 1급 따면 급여↑

계약기간 중 즉시 재산정

앞으로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급여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 시 정해 놓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예규 제정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했다. 이에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2021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부터 확인을



학생부교과전형은 대입전형 중에서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 전국의 대학은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의 42.3%에 해당하는 14만6924명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다.

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 등 서울 일부 대학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대학 대부분은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명찬 종로학원학력평가연구소장은 “주요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가 1158명으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홍익대 681명, 중앙대

전체 42.3%… 선발 비율 ‘최고’
대학별 내신 반영 가중치 따져야

574명, 한국외대 491명 순”이라면서 “의대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25.5%인 756명을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말했다.

올해 고3 수험생은 지난해 대비 5만 6137명 감소한 만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상위권은 0.1등급, 중상위권은 0.2등급, 중하위권은 0.3등급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면접고사 실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면접비중이 높을수록 내신기준 합격선이 낮아지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별로 반영과목,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도 합격의 중요한 변수이다.

김 소장은 “의대의 경우 건양대 지역 인재를 제외한 모든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며 “대부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과전형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고려대는 수능 최저를 3개 등급 기

준으로 인문계열은 등급 합 6에서 5로, 자연계열은 등급 합 7에서 6으로 강화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면접평가도 병행해 면접성적을 20% 반영한다. 의대도 면접평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성적을 10~30% 반영하므로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남은 기간 수능 영역별 학습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실천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신 외적인 평가 요소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경쟁력 또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웍스엔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그동안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었는데”

피곤하고 힘들텐데도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았어요.

이젠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프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힘을 준 이 무릎으로
또 한번 세상에 힘이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걸게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지원상담·후원문의: 1661-6595 / www.ok6595.or.kr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사회적 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치과,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주최: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사랑의열매

“회사가 성장하면 나눔도 함께 성장해야죠”

‘힘내라 대구’ 대열 함께한 김일수 셀리턴 대표

“취약계층·의료진·방역 관계자에 조금이나마...” 사재 1억 성금 LED마스크 선두기업...설립 초부터 핑크리본 등 사회공헌 관심

뷰티 디바이스 전문기업 셀리턴의 김일수<사진> 대표는 4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화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 결정이다.

성금은 전액 김 대표의 사재 출연으로 마련했다. 셀리턴은 설립 초기부터 나눔 활동에 앞장서왔다.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는 핑크리본캠페인을 비롯해 화상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평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회적 취약계층과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셀리턴의 지난해 매출은 1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5000억 원 규모

(2018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5명 중 1명은 셀리턴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임에도 셀리턴이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사실상 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LED 마스크를 개발한 배경도 재미있다. 근적외선 연구를 진행하던 그가 처음 개발한 제품은 모발 관리기기였다. 근적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 착안해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했으나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두피 대신 얼굴 피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던 김 대표는 실제 제품화에 착수해 2014년 1세대 LED 마스크가 탄생했다.

셀리턴 LED마스크는 2017년 3세대 모델을 출시했다. 바로 이 시기부터 뷰티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며 대기업들까지 속속 관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김 대표는 “셀리턴 LED마스크가 홈 뷰티기기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지속 성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지난해 9월에는 4세대 LED마스크 모델인 ‘셀리턴 플래티넘 LED마스크’를 출시해 또 한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피부암 진단분석 전문기업 스펀클립스

(speclipse)를 인수했다. 스펀클립스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미디어 메드테크 아웃룩이 선정한 ‘2018년 피부과 솔루션 분야탑10’에 이름을 올릴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대표는 셀리턴과 스펀클립스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 대표는 “셀리턴은 뷰티 영역에서, 스펀클립스는 전문 의료기기 영역에서 각각 빛에 대한 오랜 연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 전문 분야에 시너지를 도모해 뷰티 디바이스부터 전문적인 의료기기까지 포괄하는 뷰티&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셀리턴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셀리턴은 현재까지 미국,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해 총 11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국내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생경영을 중시하는 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셀리턴이 성장하는 것처럼 셀리턴의 나눔도 함께 성장하고 키우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고충받는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코스닥시장장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3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학균 후보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2001년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삼성 준법감시위 언론 담당에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언론담당 외부인사로 홍보 전문가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를 4일 선임했다.



신임 언론담당 팀장 박준영 대표는 준법감시위 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사무총장과 함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몸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현재 외부인사 영입을 진행 중이며 소통 담당 인사인 박 대표 이외에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을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황대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과기정통부, 3월 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황대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교수는 조기발병 위암의 유전단백체를 분석,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닦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기발병 위암은 만 45세 미만에 발생하는 위암으로, 우리나라 전체 위암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남해청장 치안정감 건너뛰고 2계급 승진

문재인대통령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김홍희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 어업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해양경찰청에서 기획담당관,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 등을 거쳐 남해해경청장으로 근무 중이다. 올해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현재 치안감인 김 청장은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에 올랐다.

정일환 기자 whan@

인사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총괄과장 임숙영
- ◆특허청 ◇과장급 전보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이정숙

“우리의 의뢰인은 지구”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賞 파렐·맥나마라 ‘여성듀오’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이 두 명의 여성 건축가에게 돌아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건축가 이본 파렐(69·사진 왼쪽)과 셀리 맥나마라(68·오른쪽)가 공동 선정됐다. 두 사람은 사상 첫 여성 공동수상자인 동시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첫 번째 아일랜드 건축가가 됐다.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단은 파렐과 맥나마라가 “전통적으로, 또 지금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건축계의 선구자이며, 전문가로서 훌륭한 길을 구축해 다른 이들의 지침이 됐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진실성’과 ‘동료에 보여준 관용’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같은 명성을 가진 건축가들에게는 드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파렐과 맥나마라 두 사람은 대학 시절이던 1974년 처음 만나 이후 40여 년간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페루에서 해당 지역의 자연적 요소와 필요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을 통해 여러 교육용 건물과 공공시설을 건축했다. 이들은 200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계 건축 축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보코니 대학 건축물로 올해의 세계건축상을 받으면서 국제무대에 발돋움했다.

파렐과 맥나마라가 총감독을 맡은 2018년 제16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우리는 지구를 의뢰인으로 본다. 이는 오래 이어지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설명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위기 극복 동참” 현대차 노사, 헌혈·마스크 지원

울산공장,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대구경북 협력사·취약계층 지원 지역화폐 사용 중소기업 돕기도

현대자동차 노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일 현대차 노사는 먼저 최근 헌혈 보유량 급감으로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절박한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버스 4대를 이용해 500만㎡ 규모의 울산공장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3월부터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 시설에 마스크(KF-94) 4만 개를 지원한다.

노사는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대구, 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월까지

박영선 장관 “임차료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에 감사”

명륜진사갈비서 차담회...가맹본부 정책금리 인하도 밝혀

박영선<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주들에게 임차료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금리률 0.3%포인트 낮춰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명륜진사갈비 여의도지점을 찾아 가맹점 522곳의 1개월 임차료 지원에 나선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명륜당에 감사 인사를 전달한 뒤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자들과 차담회를 개최했

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45곳이 있으며, (이들의) 지원을 받는 가맹점은 6만 30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522곳을 운영 중이다. 1월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전체 가맹점 1개월 임차료(총 23억 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임시휴업 매장 지원(총 5억 원)에도 나섰다.

박영선 장관은 “임차료와 가맹 수수료는



가맹점이 가장 부담스러운 고정비용이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기업과 정부, 소상공인이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부음

▲김숙례 씨 별세, 이윤선(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사장)·웅선·인선 씨 모친상 = 4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양양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33-671-0404

▲김봉려 씨 별세, 류상민(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백민(삼덕회계법인 이사) 씨 모친상 = 4일, 경남 남해 추모누리 장례식장 추모실3, 발인 6일 오전 8시, 055-862-0442

▲이언례 씨 별세, 황의식(인천시 전 자치행정국장) 씨 모친상 = 4일, 길병원 장

례식장 30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32-460-3444

▲나영민 씨 별세, 강창기(웅인강남병원 소아과 과장)·성기(전 조선일보·한겨레신문 기자)·소옥·옥지(에너지경제신문 편집부 부장) 씨 모친상, 김옥동·최종등 씨 장모상, 강지원·지훈 씨 조모상 = 4일,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31-213-1640

▲이남순 씨 별세, 허창훈(KB증권 북울산지점장) 씨 장모상 = 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52-272-1111

▲최영학 씨 별세, 최경준(KT 차장)·병

태(부귀농협 전무) 씨 부친상, 조영준(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장) 씨 장인상 = 3일, 전북 진안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전북 임실군 강진면 국립임실호국원, 063-430-7070

▲서상희 씨 별세, 서창배·경마·경란·미애·미현 씨 부친상, 이숙경 씨 시부상, 최성주·이정용(한국보험신문 사장)·김윤문 씨 장인상 = 3일, 서울 태능성심장례식장 4층 백합실, 발인 5일 오후 1시, 02-976-8811

▲장순원 씨 별세, 장성수(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 처장) 씨 부친상 = 3일,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낮 12시, 02-3410-3151

자본시장 속으로



김 호 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제나 신고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의 경우처럼 ‘규제 비즈니스화’한다면, 역량이 검증되진 않은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나 라이선스로 ‘과점 사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의결권 자문 시장은 이제 결음마 단계이므로 명시적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 주총 시즌만 되면 언론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주제가 생겼다. 바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역할과 상장사들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4가지로 압축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 사안인 주주총회의 안건들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에 판단한,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보고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자문사들은 주총의 숨은 권력이 되었지만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한국만의 법제도적 상황과 시장 형성의 맥락, 기업과 언론의 이해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함께 뒤섞였지만, 아직 제대로 된 업계 차원의 입장과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주총 시즌이 매우 촉박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상법상 주총 공고는 2주일 전까지이므로 기업의 공시는 여전히 주총에 임박해서 나오지만, 언젠가부터 한국 주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슈퍼 주총 데이’는 여전히 특정 2~3일에 대부분 상장사들의

주총이 몰려 있다. 게다가 올해는 국민연금이 일정한 조건하에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므로 의결권 자문사 입장에서는 분석 대상 기업과 안건이 증가해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주총 안건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상장사뿐만 아니라 주주들과 의결권 자문사까지 상생하는 길이기애 가까운 시일 내 이와 같은 문제가 꼭 시정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관별 계약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업 수나 주총 건별로 연간 금액을 책정한다. 보고서나 수요에 따라, 또는 같은 기관이라도 펀드별로도 구분하여 계약하는 해외에 비하면 단순한 방식이며, 가격 또한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리서치 보고서가 무료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는 데다가 국내 가격을 책정할 때 해외 의결권 자문사 중 1위인 ISS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ISS는 보고서 한 건을 분석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발송하므로 보고서당 단가가 낮아도 수량이 많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 영미권처럼 징벌

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지도 않다. 한국과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에 불과 5년 만에 시총 700억 원대에 서 최근 시총 1조 원을 돌파한 ‘IR재팬’이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의결권 자문업은 본질상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시장의 평판이 핵심이다. 평판은 신뢰에서 온다. 당 연구소의 직원은 2020년 3월 현재 30명(인턴 포함)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박사과 현장 출신을 거의 1:1 비율로 충원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손익을 이유로 전문성과 품질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점은 같은 업계의 다른 연구소들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감수해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보다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주장은 직접적으로 2014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중대한 이익(Material Interests)’에 대한 공시 지침’을 발표한 것에 기

인한다. 미국의 ISS는 1980년대 중반 의결권 서비스를 시작한 후 30여 년이 지난 2014년 매각 시 약 3억6400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하며 시장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주주활동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의결권 자문사의 ‘등록 의무화’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과 함께 커져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제나 신고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의 경우처럼 ‘규제 비즈니스화’한다면, 역량이 검증되진 않은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나 라이선스로 ‘과점 사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의결권 자문 시장은 이제 결음마 단계이므로 명시적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 생태계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먼저다.

의결권 자문업의 본질은 전문성과 평판이다. 결국 신뢰라는 말이다.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

CEO 칼럼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자기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세대에 따라 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해져 기존의 독립된 개별 임대주택인 오피스텔에 공용공간을 넓게 계획하고, 아파트에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해져 운영되고 있다. 업무공간도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가진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꾸려 모여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유오피스가 공급되고 있다.

그중 최근 공유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함께할 수도 있지만 혼자일 수도 있는 선택적 커뮤니티이다. 공유공간으로 연결된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 해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독립된 자기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치솟는 집세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

춘 생활양식을 공급하는 공유주택은 독립된 침실을 가지면서 거실, 주방, 운동공간, 영화관 등의 공용시설은 거주자들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초기에 공유주택은 소규모 주택으로 특색 있는 작가나 문화인들이 거주하는 기획 상품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다 대기업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대학가의 저렴한 주거 유형으로, 기존의 다중주택인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세대, 계층, 그룹, 취향에 따라 특색 있게 공급되며, 이제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유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정한 가이드와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불편함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 외로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활용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또는 미혼·비혼 가구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공유주택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주거상품으로, 2월 서울시는 이의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10여 년 전인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원룸이라는 주거유형을 기초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주택법 개정 이후, 공유주택이란 새로운 주거형태가 법적 안정화를 통해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다중주택을 활용해 정적으로 공유주택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과정을 함께한 필자는 이러한 공유주택 법제화가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건축법상 용도분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유주택은 공용부나 거실 공용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 상품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결국 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다중주택의 범위를

공유주택 법제화에 고려해야 할 점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명언
“모든 자연 현상은 그저 적은 수의 불변하는 법칙에서 나온 수학적 결과일 뿐이다.”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명저 ‘천체역학’은 뉴턴 이래의 천체역학을 집대성하여, 태양 등 천체계에 관련된 많은 현상을 해명했다.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 칸트-라플라스설인 성운설(星雲說)을 완성한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49~1827.

☆ 고사성어 / 추지대엽(麤枝大葉)
‘거친 가지와 큰 잎’이라는 뜻. 자잘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글을 짓는 자세를 비유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가 원전. ‘상서(尙書) 서문은 공안국(孔安國)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漢)나라의 문장은 거친 가지와 큰 잎과 같은데, 지금 전해지는 서문은 세밀하고 정치(精緻)한 것이 육조시대에 지어진 것 같다.”

☆ 시사상식 / 매몰비용(Sunk Cost)
의사결정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함몰비용이라고도 한다. 일단 지출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기업의 광고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무궁화(無窮花)
한자어목근화(木槿花)→무진화→무궁화→무궁화의 형태로 변했으며 여기에 뜻이 좋은 무궁화를 차음(借音)했다.

☆ 유머 / 건망증 특효약
시골 모텔 주인아줌마가 투숙한 청년의 가방에 돈이 가득 든 걸 보고 놀라 남편에게 “돈 가방을 놔두고 가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물었다. 남편이 “천년 묵은 까마귀 진액. 이거면 까맣게 잊고 말 거야”라고 하자 아줌마가 밥에 타서 저녁으로 내줬다.

다음날 아침 아줌마가 “그 청년이 가방만 잘 챙겨 가버렸다”고 소리치자 남편은 “효험이 전혀 없었다고? 비싸게 산 건데”라고 했다. 아줌마 대답. “한 가지 효력은 있더라고. 숙박비를 까먹고 안 내고 가버렸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안 경 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

하는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도 코로나 관련 지침을 내렸다. 동원홈푸드는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인사(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종인 두 회사의 조치에는 공통

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사람을 ‘코로나의 매개’로 간주해 임직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대해 “동물에서 사람에게, 다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한 질병관리본부 시각과 같은 맥락의 조치다.

현격한 차이점도 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 여부다. 두 번째 사례에 등장하는 ‘징계’라는 단어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사에서 ‘코로나 감염=부당 행위’라는 등식이 성립한 셈이다.

가치 판단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판단이 경우에 따라 기업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하물며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직원(사람) 안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대구에 계시는 어머니께

어머니, 무탈하신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 지역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걱정되네요. 코로나19가 불효자식을 효자 행세하게 만드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하다가 대구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온 뒤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역사회로 감염되면서부터 매일 안부를 묻게 되네요. 최근 지인 중 한 분의 아버님도 대구에 사시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 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걱정이 더 커 집니다. 대구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확진자가 자가 격리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난달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더 급할 것 같아서 미세먼지 차단 용으로 미리 사뒀던 마스크를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드네요.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가 가동되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마스크 대란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직접 사과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의 탁상행정을 질책하며 현장에서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저희도 마스크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 피해를 고스란히 어머니께서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에 손님이 없다”면서 “대구에 심각하다”고 한숨 쉬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에, 공과금에, 대출금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어머니께서 “오늘은 그래도 손님 1명 왔다”며 다투리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장사를 접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

데스크칼럼

신 동 민

정치경제부장



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당분간 접으면 그나마 있던 단골까지 다 떠나간다”고 고집하시며 장사를 계속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장사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네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얘기가 생각나 지난날 21일 어머니께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라는 말씀에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신청 마감일이라 대출자가 너무 많아 기다리시다가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못쩍어 하신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급히 생활비를 보냈을 때 어머니께서 “너희도 힘들 텐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서도 “이럴 때 자식이 좋은가 봐”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생활비 문제를 상의할 때 저의 찌질한 모습을 꾸짖은 아내의 통 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추가 대출을 해줘 어머니께서 “대출을 조금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으려고 하니깐 장사도 안 되는데 앞으로 갚을 게 걱정이 돼 조금만 받았다”는 말씀에 짜증을 낸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저리로 대출해주는데 필요한 만큼은 다 받으셔야죠”라며 “저하고 상의하고 대출을 하셔야죠”라고 생각 없이 내뱉었네요. 또 어머니께서 “그 돈도 빠르면 한 달이 넘어야 나온다”고 힘없이 말씀하셔서 답답함만 느꼈습니다.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끝까지 버텨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대구에서 장사하는 친구들도 정부에서 대출만 해주면 뭐하냐며 손님이 없어 당장 장사를 접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니께서 “방학이 길어져 어미가 고생이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맞벌이하는 처지에서 아내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둘째를 집에서 매일 챙기는 중학생인 첫째가 학력이 추가로 연기됐다는 소리에 불평을 털어놓네요. 애들과 아내에게 미안함만 커지네요.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뿐이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죠. 정치권도 코로나19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4·15 총선 승리를 위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찬 ‘박근혜 시계’를 놓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네요. 그래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몸조심하시고 당분간 장사를 접으라고 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lawsdm@

코로나19 사태의 이면(裏面)

2020년 대구. 이름도 생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이 숫자가 늘어갈수록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신천지’를 놓고 정쟁을 벌입니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고 서로를 견제할 도구 가운데 ‘코로나19 만한 게 없겠다’ 싶었던 것이겠지요. 코로나19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퍼져 나옵니다. 이들은 그래도 정쟁을 그칠 줄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과 사고마저 코로나19 뒤에 꼭꼭 숨어들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에는 배우 하정우를 포함한 유명인의 프로포폴 투약혐의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여느 때 같았다면 세상이 온통 떠들썩했을 텐데, 이 역시 코로나19 뒤에 숨어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중입니다.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터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쏟아지는

코로나19 뉴스 뒤에 가려져 기억 밖으로 멀어집니다.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세상의 관심은 코로나19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자동차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불거진 성추행과 성희롱 논란이 코로나19 뒤에 숨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과 인사 불이익을 하더니, 이 일을 빌미로 성추행을 일삼았던 일이지요. 국산차 업계에서는 터무니없는 실수로 꽤 잘 만든 신차 하나가 ‘사전계약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버젓이 하이브리드를 내세웠으나 나라에서 정한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을 간과했던 것이지요. 사정이 이쯤 되면 경영을 책임진 누군가가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용히 코로나19 뒤에 숨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창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부정과 잘못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얼마나 마련했는지 꼭 묻겠습니다.

junior@

사설

미국 전격 금리인하, 한은도 비상대응 나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P) 인하했다. 과감하고 전격적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하폭도 통상적인 0.25% P의 2배를 한꺼번에 내렸다.

Fed가 정례적인 FOMC 회의가 아닌 때 금리를 내린 사례는 흔치 않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이번 조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긴급히 0.5%p 낮춘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Fed는 추가 금리인하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고 무너진 공급망을 고칠 수도 없지만, Fed의 적절한 대응이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오는 17~18일 예정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에 제로(0) 금리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하가 발표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풀이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의 코로나19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Fed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미국 요청으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전화회의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긴밀한 협력과 국제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각국의 잇따른 금리인하가 예고된다.

Fed의 선제적 금리인하로 한국은 행의 통화정책이 실기했다는 논란도 비등하다. 한은은 2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미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4월 나을 1분기 지표를 확인한 후 대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에서였다. 부동산값 상승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에 발목 잡힌 탓으로 보이지만,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금리인하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 사태 확산의 충격도 중국 말고는 가장 심각하다. 국민의 일상까지 멈췄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클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장률 추락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예측이 잇따른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은의 비상한 대응조치가 다급하다.



건강 100세

여성이 주의해야 할 3가지 암

여성이라면 주의해야 할 3가지 암(癌)이 있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이다. 주의해야 하는 이유 또한 3가지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으며, 완치 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FIGO 병기 3, 4기에 발견된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저출산 등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란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데, 출산이나 임신의 경험이 적고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으면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난소암 발생률은 약 30~40% 정도 낮아지며 경구피임약 복용 역시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

자궁내막암 또한 난소암과 같이 발병률이 증가하는 부인암 중 하나다. 발병 원인은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 불임, 늦은 폐경, 비만, 당뇨병 등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스

트로겐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은 에스트로겐 수치 증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중요하며,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중 유일하게 선별 검사를 통해 초기에 진단이 가능하며 유발 원인(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상용화돼 있는 암이다. 흡연, 면역 기능 저하, 비위생적 환경, 영양소 결핍 등의 요인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성관계 후 질 출혈이나 대부분의 암이 그러하듯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 항체 개수에 따라 3종류가 있으며 만 9~26세(최근 미국에서는 45세까지 연장됨)까지는 필수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아직 불분명하기에 접종 전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종 후에도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는 필수적이다.

정민형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2014년 진도. 얼굴 살을 찢어내듯 스쳤던 팽목항의 싸늘한 바닷바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 세상은 사고 원인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분노를 쏟아낼 누군가를 찾아 ‘마녀사냥’을 반복하기에 바빴으니까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잡겠다며 진도체육관으로 달려온 실종자 가족 앞에서, 한가롭게 라면을 먹던 장관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인터넷에 떠돌던 괴담 따위를 들고 방송사 카메라 앞에선 민간잠수사 홍모 씨, 또 이튿날에는 세모그룹의 장학금을 받았던 해경 간부에게 세상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커다란 재난에 세상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마녀사냥은 그 끝에서 유병언, 그리고 구원파라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정부 당국도 ‘구조 실패’라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야 사고 원인을 다시 밝히려하며 검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3월의 할인 키워드는 현대자동차

3월 최대 7% 할인 차량 |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
코나



개별소비세 인하 연계 인기 차량 4종 최대 7% 할인
현대자동차 3월 특별 구매혜택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대상 및 구매혜택 •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 코나 주요 인기차종 최대 7% 할인



※ 아반떼, 쏘나타, 코나, 싼타페 중 11,000대 한정 재고 대상. ※ 차종별 최소 2%~최대 7%까지 할인제공. ※ 상기 최대 할인율은 3월 특별 구매혜택에 한정 / 할인 대상에 따른 타겟 조건 중복 적용 가능 / 기본 조건 중복 적용 불가 ※ 정상이 대비 ▲아반떼5~7% + 1.5% 저금리 할부 ▲쏘나타3~7% ▲코나2~7% ▲싼타페4~7%
※ 대상 차종 한정 재고 소진 시 자동 종료. ※ 각 차종별 대상 조건과 적용 할라 등 세부 문의사항은 가까운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요.